

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63.48 (-12.68)	727.70 (-7.22)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65 (-0.029)	1449.50 (+7.10)



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 전망  
02

## 경영권 흔드는 상법 개정안... 행동주의 공세 거세진다

### 주총 앞둔 기업들 '좌불안석'

# 최근 중견기업 A사에서는 국회 통과를 앞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주요 임원들이 모였다.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까 걱정이다", "인건비 부담에 가뜰이나 힘든데 '소송'까지 대비해야 하느냐" 등등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경우, 이사회가 분할·합병이나 신사업 진출 등 주요 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펀드들이 사사건건 소송을 걸 공산이 크다. 회의는 한 시간도 안 돼 끝났다. 일주일 후 다시 모였지만 역시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3차 회의 날짜를 또 잡았다. 한 임원은 "정치권이 이 정도면 기업보고 한국을 떠나란 얘기 아니냐"면서 "다시 모여도 해법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 KT&G·영풍부터 코웨이까지 강해지는 주주 행동주의 압박

### 국회 문턱 앞둔 상법 개정안에 방어수단 없는 중견기업 비상

3월 정기주주총회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사업 못 해 먹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행동주의 탈을 쓴 투기 자본의 창이 많아지고, 날카로워지고 있어서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업은 경영권까지 격정해야 한다.

### ◆주총 앞두고 목소리 내는 '행동주의'

9일 재계에 따르면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방경만 KT&G 사장 취임 후 1년간 KT&G의 경영 성과에 대해 낙제점에 해당하는 'F' 평가를 내린 서한을 회사 측에 발송했다. FCP는 "미래 먹거리인 권련형 전자 담배(HNB) 해외 판권을 경쟁사에 감감이로 넘긴 것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감하는 권련담배에 1조원 투자를 집행한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난 1년간 주가가 70% 오른 필립모리스를 벤치마킹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KT&G는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와 코웨이측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총 의결권 대리인을 통상 인원보다 많은 2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코웨이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주총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 지분 3% 이



첫GPT로 생성한 행동주의 펀드 이미지.

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한편 주주 친화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영풍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고 주시 액면분할을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언로킹 밸류(Unlocking Value)'라는 명칭의 소액주주가 농심의 낮은 수익성과 주가 부진을 지적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내부일감 몰아주기, 성과와 무관한 경영진 보수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배구조 이슈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떨어진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주총 기간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서다. IBK투자증권은 향후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파마리서치, 동진세미켄, 동원F&B, 휴메디스 등을 꼽았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얼라인 공개 캠페인 진행에 따라 유사 조건 기업에 동일한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 ◆상법개정안, 경영권 흔든다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더 많은 공격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영권 방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지난해 87사 315건으로 전년 93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9곳(68%), 중견기업이 22곳(25%)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6곳(7%)에 불과했다. 중소·중견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35%에 불과하지만, 경영권 분쟁 발생 기업 중에선 93%를 차지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잇따르는데 기업들은 이를 방어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불황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세계 식량가격 상승에 먹거리값 도미노 인상

2월 세계 식량 가격지수 1.6% 올라 설탕·유제품·유지류 상승 두드러져 신라면·비비고만두·스팸 인상 행렬

원자재값 상승과 고회환율, 여기에 세계 식량 가격까지 오르면서 국내 가공식품 가격이 연이어 인상되고 있다. 빵, 초콜릿, 과자뿐만 아니라 냉동만두,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과 라면, 스낵류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월 세계 식량 가격지수는 127.1로 전달보다 1.6% 상승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속 하락한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3% 오른 수치다.

특히 설탕과 유제품, 유지류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설탕 가격지수는 공급 부족 우려로 6.6% 급등했으며, 유제품 가격지수도 4.0% 올라 148.7을 기록했다. 팜유, 유채유, 콩기름 등 유지류 가격지수 역시 2.0% 상승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 생산국의 계절적 생산량 감소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 곡물 가격도 오름세다. 곡물 가격지수는 0.7% 상승한 112.6을 기록했다. 특히 밀 가격은 러시아의 공급 부족



9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신라면이 진열되어 있다. 원재료 가격 및 제반 비용 인상, 고회환율 등으로 식품업계 원가 압박이 심화되면서 먹거리 가격의 줄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조정하고, 총 56개 라면과 스낵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 /뉴시스

과 기상 악화로 인해 상승했다.

글로벌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품 가격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등 17개 브랜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라면은 950원에서 1000원으로,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이달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만두 20여 개 제품의 가격을 5.16% 인상했다. 대표 제품인 왕고자는 8980원에서 9480원으로,

햄과 소시지 가격도 8.10% 올랐다.

스팸 클래식(200g)은 5580원에서 5980원으로, 백설 한입속 비엔나(90g)는 1980원에서 2180원으로 인상됐다. 동원F&B도 지난 1일부터 냉동만두 15종의 가격을 평균 5% 올렸다.

육가공품에 주로 쓰이는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가격이 3년간 21% 올랐고, 국내산 돼지고기는 1년 새 12.5% 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부 만두 제품에 들어가는 수입산 오징어 가격도 전년 대비 30% 이상 올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헌재, '尹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가능성

통상적 변론 종료 후 2주 내 이뤄져 법조계·정치권 13일 또는 14일 예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초 선고기일을 지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로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절차 종료 후 2주 내에 이뤄졌으므로, 오는 13~14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인용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헌재가 이같은 변수를 고려할지가 관건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일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가 원칙이지만, 특별기일을 잡아 탄핵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다. 둘 다 당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다.

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렸다. 이 때문에 법조계나 정치권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13일(목요일)이나 14일(금요일)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메트로 한줄뉴스



▲윤 대통령, 석방 뒤 권성동 등과 통화... 권성동 "안부 주고받아"  
▲나경원 "검찰에尹 석방 지연 책임 물어야... 공수처 해체법 발의" /사진 뉴시스

▲'비서 성폭력 의혹' 장제원 "10년 지나 고소"... '피해자다움' 매몰 지적  
▲이재명 "검찰과 싸고" 발언에 비명계 반발 커져... "통합 행보 진심 못 믿어"

▲'개헌' 고리로 이재명 포위하는 與... "이 대표 한 분만 동참 안해"  
▲권성동 "대통령·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 일고의 가치 없어"

# 물가 오르고 경기 침체... 美 '금리동결' 무게, 6월까지 내릴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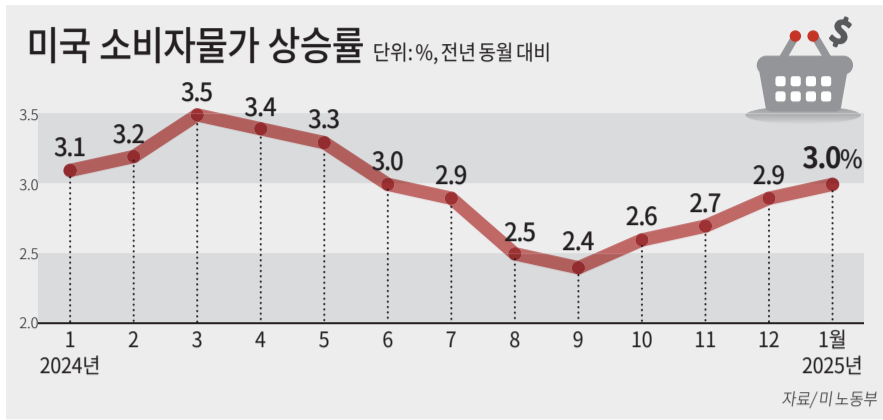
파월 "트럼프 정부, 무역·이민 등 네가지 분야 정책변화 시행 과정 영향력 명확해질 때 기다리겠다"

미국 뉴욕 금리선물 시장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 88%로 내다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이 명확해질 시기가 되어서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미국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15만1000개 증가했다. 한 달 전(14만3000개)과 비교하면 8000개 늘었지만, 지난해 월평균(16만6000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4.1%로 같은 기간 0.1%포인트(p) 올랐다. 1년 전(3.7%)과 비교하면 0.4%p 상승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 ◆경기 안 좋아지는데, 물가 상승

문제는 이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기준 3.0%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1% 상승했다. 지난해 6월 3.0%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는 ▲9월 2.4% ▲10월 2.6% ▲11월 2.7% ▲12월 2.9%로 올랐다.

집값을 제외한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1월 기준 2.5%로 전달과 비교하면 0.1%p 낮아졌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다. 물가가 높으면 수요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한다. 현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 금리를 인상할 수도, 경기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 등 네가지 분야에서 중대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아직 그에 대한 영향력이 불확실하므로, 서두르지 않고 명확해질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관세 정책 영향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17~18일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카고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미국 뉴욕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이달 현 4.25~4.50%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8%로 내다봤다. 실업률이 높아지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한 달 전(92%)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동결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다음 금리인하는 6월이 되어서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가 공개한 이코노미스트 설문 에 따르면 응답자 101명 중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는 22명, 6월 금리인하를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는 45명이었다. 연말 금리를 전망한 이코노미스트 99명 중 금리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16명에 달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3국 간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중국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한 상태. 이에 대해 캐나다는 보

복관세를 예고했고, 중국은 미국의 농축산물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관세정책이 각 국가의 보복관세로 이어지면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인상) 우려에 대해 "최근 단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1년 이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2% 물가 목표에 부합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가 예상하는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물가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이를 반영해 상품의 가격을 올려 실제로 물가가 상승한다.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목표치 2%에 부합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방향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신동빈, 5년만에 롯데쇼핑 등기이사 복귀

(롯데그룹 회장)

롯데쇼핑 "불황 속 책임경영 의지" 24일 주총서 사내이사 선임 상정



신 회장이 롯데쇼핑 사내이사직에 복귀하는 것은 5년 만이다. 그는 지난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직에 오른 뒤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이후에도 사내이사직은 유지해 왔다. 그러다 2020년 3월,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만료를 앞두고 사임계를 제출한 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경영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번 신 회장의 복귀는 유통업의 지

속적인 불황 속에서 책임경영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 관계자는 "그룹의 한 축인 유통 부문을 직접 책임지고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통 업계는 오프라인 침체, 온라인 시장 경쟁 심화, 소비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종 법정 규제로 인해 온라인과의 경쟁이 심화된 대형마트 경우는 소비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삼성, 계열사 16곳 상반기 공채 실시

17일까지 삼성커리어스에서 접수 내달 직무적성검사, 5월 건강검진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이 10일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9일 삼성에 따르면 상반기 공채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6곳이다.

공채 지원자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입사희망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4월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 5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삼성 미래 세대에 대해 더욱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국내 주요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재제일(人材第一)' 경영철학에 따라 68년간 이를 유지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 중견 건설사 연쇄 법정관리... 문 닫은 중개업소도 850곳

(올해 1월 한달 간)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신동아 등 7개사 법정관리 신청  
지난해 중개업소 1.3만곳 폐업  
정부 지원에도 시장반응 '싸늘'  
LH 미분양 매입안 실효성 한계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줄도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원자재 등 공사비는 급등한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적체로 건설 경기 침체는 장기화된 탓이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은 가운데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만도 수 백 곳에 달하는 등 지방 내수 경기도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 침체 늘 건설경기... 건설사 줄도산 현실화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68.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과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중견 건설사 7곳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부도까지 가진 않더라도 문을 닫는 건설사들도 크게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월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46건이다. 하루에 한 곳 이상 문을 닫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종합·전문 건설사의 말소·폐업 업체수는 3071곳에 달했다.

악성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 위기설도 재점화됐다.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대손 반영이 본격화되면 부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2624호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선착순 특별분양 등의 혜택을 내걸고 있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 '힐스테이트 두정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전지원 기자

6월에 7만4000호를 기록한 이후 6만호 안팎으로 줄어 들다가 작년 12월에 다시 7만호를 넘기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호로 집계됐다. 2013년 11월(2만2227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 지역 체감경기 '최악'...문닫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역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공인중개업소는 1만3250곳에 달한다. 휴업한 곳까지 더하면 총 1만4721곳으로 신규 개업(1만308곳)을 크게 웃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올해 1월에만 문을 닫은 공인중개업소가 전국적으로 852곳에 달한다.

대전 동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매매는 한 달에 한 건 있을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다"며 "주변 중개업소들도 하나둘씩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곳이 많다"고 전했다.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는 물론 시공사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3000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율 인하 혜택 역시 대상이 제한적이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지원책이

있어도 실수요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근에 최근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개별 계약자에게 25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총 997세대 중 약 150세대가 미분양 상태다.

아산시 배방읍에서 지난해 8월 분양한 '배방 필하우스 리버시티'(1083세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단지는 오는 2027년 1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약 20~30%가 미분양 상태다.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800만 원 정도의 가격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아 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상미·전지원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현재, 만장일치 결론 위해 평의 늘릴수도

>> 1면 '현재, '尹 탄핵심판...'서 계속

게다가 현재는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태다.

그리고 현재는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양측에 기일을 공지한다. 이 때문에 만일 13~14일에 선고할 경우를 가정해 날짜를 역산하면, 선고 2~3일 전인 이번주 초 현재가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기 위해 평의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전날(8일) 구속취소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것이 변수이므로, 재판관들의 정리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을 받

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현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에 변론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사유는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이며,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석방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서예진 기자 syj@

**Dream Big DB**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증을 만드는 꿈
-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DB 모두의 마음 속엔 꿈이 있습니다**

<b>보험</b>	<b>금융</b>	<b>반도체 · IT</b>
DB손해보험, DB생명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DB캐피탈	DB아이텍, DB글로벌칩, DB Inc.
DB금융서비스, DB메탈, DB월드, DB월드건설, DB커뮤니케이션즈		

# ‘스윙생산’으로 생산기지 최적화… 인도 R&D·제조 확대

〈여러 생산지에서 유연하게 제조〉



## ③ LG그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의 관세를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변석개식 관세 정책에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현지에서 주요 공장을 둔 LG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전략을 계속 수정하며 초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LG그룹은 고부가가치 제품과 R&D 인력 발굴에 집중하고 스윙생산(한 제품을 여러 생산지에서 제조)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리스크 확대… 스윙생산으로 극복**  
美 수출 변수 커지며 공급망 재편 가속  
핵심기술 강화에 R&D인재 집중채용  
AI·SW 혁신박차,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주요 계열사 생산기지 멕시코에

한국무역협회가 9일 발간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가 지금 같이 부과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총수출은 지난해 대비 2억2000만달러(32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LG그룹은 가전, 배터리 등 주요 생산 거점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둔 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장) 등에 생산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을 찾아 에어컨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LG

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800만대가 넘는 가전을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만든 배터리 공장이 있다. 올 하반기(7~12월)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여서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의 거점이다. 결국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미국 수입물량 제한, 세이프가드 조치까지 취하면 LG전자가 받을 관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스윙생산 확대, R&D 인력 확보

이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LG전자는 제품을 다양한 곳에서 생산하는 ‘스윙 생산’ 등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당장 생산 시설을 대거 이전하는 것보다 기존 공급망을 유연하게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 김창태 부사장은 지난 4분기 컨콜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제

품은 스윙생산 체제를 확대하고 코스트 경쟁력을 기반으로 최적 생산지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에는 선행 생산으로 물량을 분산시키고 유통업체들과 협업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LG전자는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인도를 주요 글로벌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도에 진출한 지 30년이 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최근 LG전자는 인도 가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으로 각각 3조7910억원, 3318억원을 기록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인도를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이 아닌 인도를 선택한 것. 구 회장은 연구개발(R&D)·생산·유통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점검했다. 아울러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을 방문해 인도 시장의 변화 상황과 생산 전략 방향을 살폈다.

LG전자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상반기 채용을 가진 사업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에서만 진행하고 모집 대상은 ‘기계·기구 R&D 인력’으로 한정했다. 이는 그간 채용전략과 상반되는 행보다. 과거 LG전자는 신입사원 채용 시 가전, TV 등 전 사업본부에 걸쳐 전형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R&D에 한정해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구 회장도 인도를 방문해 IT 생태계 강점을 살린 현지 R&D 인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구 회장은 연구원들과 만나 “가속화되는 SW 기술 혁신에 대응하고 우수 R&D 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미래 SW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 그룹 차원의 글로벌 R&D 지향점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꼭 달성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노텍·엔솔, 현 전략으로 ‘돌파’

LG이노텍은 멕시코 현지 생산 전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LG이노텍은 멕시코 산후안델리오에 위치한 3000평 규모 공장에서 모터, 센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인근에 3만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지난해부터 현지 시설 증설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증설된 공장에서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 및 차량 조명 모듈 등을 주로 생산할 예정이다.

**인도 거점 확대… 시장공략 본격화**  
생산·유통·R&D 삼각전략 구축 나서  
LG이노텍·LG엔솔, 기존 전략 유지  
공장 증설·현지 생산 확대 통한 대응

문혁수 대표는 지난 1월 CES 2025 기간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생산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겨도 멕시코가 더 싸다. 관세를 덜 내는 방향으로 가능할지 면밀히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전략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에 이미 7개의 생산공장을 보유 중인 상황이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분석에서도다.

LG엔솔 관계자는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스텔란티스에 공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스텔란티스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초기 단계인 인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은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TAY영덕

# 제28회 영덕대게축제

## 03.14. 금요일 ~ 17. 월요일 강구해파랑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정치권, 혼란 이용해 반사이득 취득”… 불확실성 제거 절실

尹 석방 이후 “방어권 보장해야”  
野 “헌재, 신속 결정해줄길 바라”

조기대선까지 불안·혼란 지속될 것  
강성지지층 결집에만 노력한다면  
법·정의·상식 실종… 혼란 더 커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에 진영간 대립으로 인한 저항도 혼란이 세 달 이상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해가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권 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심이 바닥을 쳤으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이 거리로 나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측을 적극 옹호하면서 공고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1차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고 2차 표결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2차 표결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는 각 사안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며 정쟁을 지속하며 혼란을 가중했다. 먼저, 국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 체제를 구성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

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론냈다.

거리에서 혼란은 더 극심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른 이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고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소환 요청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의 초유의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무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명의 시위대들이 법원을 습격하고 점거해 법원 집기를 부수고 영장 담당 사를 찾아 다니는 등 불법 점거와 폭동을 감행했다.

여권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헌법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격을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심판 선고 기일을 잡는데 고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날(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안도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탄핵심판과 석방을 별개라며 현재의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면서 릴레이 철야 농성과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재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줄길 바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 갈등을 완화하기 보다 혼란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사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기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영 대결에 따른 불안과 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지식인 등 정치엘리트가 진영 논리를 통해 반사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사태로 지탄을 받았으나, 진영에 얽히면 그 게 묻히고 영웅이 되는 것처럼 윤 대통령도 계엄에 대해서 유죄가 나도 만약에 진영에 얽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진영 논리에 따른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노력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과 정의, 상식이 다 실종돼버려서 혼란이 더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홈플러스, 투명·확실한 정산계획 밝혀야”

민주당 홈플러스 노조·점주 간담회  
피해 점주, 1월당 매출분 정산 못받아  
기업가치 하락 없는 회생계획 요구

“지금 여기 모이신분 가운데,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매출액을 정산 받으신분 계십니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피해점주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당장 올해 1월분 매출액을 정산 받지 못한 홈플러스 피해 업주들이 홈플러스 측에서 투명하고 확실한 정산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 점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들은 단기적으로 미정산 금액에 대한 사측의 문서화된 정산 계획 공지와 장기적으로 홈플러스 정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입점 점주들은 계약서상 당월 매출을 익월 말일에 정산받는다. 하지만 계약서상 매년 1월의 매출은 3월 첫째주에 정산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홈플러스가 3월 초 연휴 후 3월4일 0시3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3월4일에 11시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1월당 매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홈플러스 노조 및 피해점주 간담회에서 민병덕(오른쪽) 을지로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시스

분을 정산받지 못하게 됐다.

피해점주 A씨는 “제가 3월4일에 받아야 했을 돈이 정확하게 7041만원이다. 3월5일에 카드 대금, 6일에 인건비, 7일에 식자재비가 나간다. (생활비 포함) 카드 대금 1200만원, 인건비 2800만원, 식자재값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와 식자재 값만 운영 고정비가 5800만원인데, 1월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높은 이자의 리볼빙 서비스도 이용하고 추후에 세금을 내려고 모아뒀던 적금을 꺼서 막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달은 어떻게 매웠는데, 다음달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막막해 했다.

피해점주들은 홈플러스의 정산 체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입점점주들이 홈플러스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면 매출액을 홈플러스가 갖고 있다거나 수수료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익월 30일에 정산을 해준다. 반면,

홈플러스에 입점한 일부 대형 업체들은 홈플러스 측에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매출액을 증빙해 돈이 묶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수용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며 고용안정 및 폐점과 매각을 통한 기업가치 하락없는 회생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MBK의 머뭇거림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MBK 및 김병주 회장의 자금 투입을 통한 홈플러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용 위원장은 “2월28일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3월4일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노조 측이 홈플러스에 있는 경영진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측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줄 몰랐다고 한다”며 “불과 며칠 사이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을 며칠만에 정리해서 낼 수 있나”라고 의심을 드러냈다. /박태홍 기자

## 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 요구

野5당 원탁회의, 공수처에 고발 결정  
심 총장 사퇴 않을 시 탄핵 추진 방침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야5당 대표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를 안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결국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

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라며 “하필 구속기소가 시급했던 1월26일 그 시간에 심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하냐”고 질타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으로 이게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사측생의 각오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지지하지 않고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총성의 결과”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5당 원탁회의의 논의 결과,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헌재 파면 결정까지 매일 시민사회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syj@

#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 자녀 안전·교육자금 한 번에... 새학기 보험 특화상품 주목

삼성화재, '자녀올케어II 특약' 등하굣길 보행 중 차사고 보장  
교보생명, '아이교육보장보험' 교육자금에 종신보험까지 결합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지난 4일 전북 전주 전주효천초등학교에서 신입생과 학부모가 입학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시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자녀의 안전사고와 교육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등하굣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중·장기 교육자금 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달 새학기를 맞아 자녀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장하는 '자녀올케어II 특약'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자녀(만18세 이하) 등하굣길을 걸어가다 자동차와 접촉한 사고를 보장한다.

기존 자녀올케어 특약은 자녀가 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했다. 이번 신설했던 특약은 자녀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자녀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손자녀를 포함했다.

자동차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경

우 '교육보충 지원금', '심리상담 지원금',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후유장애 지원금' 지급 시 보험금의 50%를 추가지급한다.

삼성화재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개학 시즌을 맞아 우리 자녀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며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들이 불의의 사고에도 빠른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지난해 8월 출시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입 연령은 6~15세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에서 필수적인 보장

만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DIY (Do It Yourself) 상품이다.

초중학생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다. 당장 필요 없거나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보장까지 십년간 유지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10세 남아가 보험 기간을 15년으로 선택해 추가 보장 없이 가입한다면 '기본형'은 월 5912원, '든든형'은 월 9339원만 부담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

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담보를 경제적 부담이 덜 하도록 제공해 학부모들이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자금 마련까지 고려하면 교보생명의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이 대안으로 꼽힌다. 해당 상품은 시대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에 교육보험을 결합한 교육보장보험이다. 평생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보험료 납입기간(10년납 미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교육자금 자동전환 기능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해 발생한 재원으로 자녀 대학등록금, 해외유학·독립자금 등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납입기간과 가입금액에 따라 17%에서 최대 28.5%까지 교육자금 보너스를 추가로 적립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린 자녀를 둔 3040 부모는 물론 교육보험의 추억이 있는 6070 조부모들도 손주의 교육·독립자금 마련은 물론 가족생활보장까지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 삼성생명 산학 협력 아이디어 라이프노로지 랩 개최

삼성생명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성수동 레트에서 '라이프노로지 랩(Life nology lab)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라이프노로지 랩'은 삼성생명 및 국내 3개 대학(홍익대·국민대·성균관대), 삼성디자인교육원(SADI)이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보험을 넘어 고객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시작한 혁신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 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탄생시켰다.

실제 연구소 컨셉으로 꾸며진 이번 전시회는 고객 행복에 꼭 필요한 '신체(physical)', '정신(mental)', '사회(social)'적 웰니스를 주제로 디자인된 25개 작품이 전시된다.

### 삼성화재 전액본인부담비 보장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

삼성화재는 전액본인부담(비급여 포함) 항암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비 및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비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는 고객이 소요되는 전액본인부담 암 치료비를 보장한다. 고객들이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고객의 치료 선택권을 넓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암 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는 암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넓히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대해상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피도크 협업 영상 선포

현대해상은 지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법' 영상 캠페인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영상은 '수영과 항해'를 주제로 소녀, 어머니, 할머니 세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숏폼 애니메이션이다. 일러스트레이터 '피도크' 작가와 협업으로 제작됐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소녀, 그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어머니, 이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렸다. 새로운 도전과 따뜻한 연대를 통해 확장되는 여성들의 힘은 유적이고 동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서울원 아이파크 완판됐지만... 강북권 집값 저항 여전

GTX-C 등 대규모 개발 기대에도 강남권 신축과 차이 적어 부담감

서울 강북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서울원 아이파크'가 펜트하우스 1가구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판됐다. 하지만 분양 초기부터 강북권 최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두 차례 무순위 청약에 거처야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서울원 아이파크는 최근 진행된 2차 무순위 청약에서 99가구 모집에 516명이 신청해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분양 절차가 마무리 수순이다.

분양 과정이 기대 만큼 순조롭지는 않았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4.94대 1을 기록하며 초기 흥행에 성공한 듯했지만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다.

이후 두 차례 무순위 청약에 거처 남



'서울원 아이파크' 완공 후 예상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은 가구가 해소됐지만 강북권 단지의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이 드러났다. 특히 전용면적 105㎡의 분양가는 최고 16억원대로 책정돼 강남권 일부 신축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대규모 상업시설 등과 함께 신축 주거단지 개발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프라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실거주 수요가 즉각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정기철(74)씨는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이 많다"고 말했다.

강남권과 달리 강북 지역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정 가격대 이상의 매물에 대한 매수 심리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와중에 수요자들의 잦아드는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입지의 희소가치 등에 따라 수요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에서는 '뽕뽕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반면 강북권에서는 가격 저항이 커지며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강북권 신축 단지는 가격 저항이 커지며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전지원 기자 jiw13@

# 둘째 주 전국 3개단지서 1205가구 분양

## 분양 캘린더

부천 심곡동 '부천JY포에시아' 청약  
건본주택은 인천 용현동 1곳서 개관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205가구(일반분양 12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JY포에시아', 경북 안

동시용상동 '안동용상하늘채리버스카이',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에피드스타시티'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우방아이유웰센트럴마린' 1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은 경북 안동시 용상동 일원에 '안동용상하늘채리버스카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9개동, 전용면적 84㎡, 총 548가구 규모



'용현우방아이유웰센트럴마린' 투시도. /용현우방아이유웰센트럴마린 홈페이지

다. 단지 앞 경동로를 통한 안동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며 용상교리신국도를 비롯한 용상중로, 안동 외곽순환도로 교

차로 등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SM스틸·SM경남기업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서 새한아파트 주택재건축을 통해 수상복합 아파트 '용현우방아이유웰센트럴마린'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1층, 2개동, 전용면적 59~76㎡, 총 252가구 중 아파트 196가구(오피스텔 76실 별도)를 일반분양한다. 수인분당선 승의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전지원 기자



# SUV 실용성에 트럭 적재능력 더했다... '픽업트럭' 인기

기아 '타스만' 첫 날 2200대 판매 출시 17일 만에 계약 대수 4000대 KGM '무쏘 EV' 3000만원대 출시 첨단 안전기술에 화재 걱정 덜어 한국GM 'GMC 시에라' 연식변경 최고출력 426마력, 압도적 크기



기아 '더 기아 타스만'.



KGM 무쏘 EV.



한국GM GMC 시에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실용성과 트럭의 적재 능력이 결합한 픽업트럭이 주목받고 있다.

KGM모빌리티(이하 KGM)이 주도해 온 픽업트럭 시장에 기아가 독자 개발한 정통 픽업트럭 '더 기아 타스만'을 출시하며 흥행 몰이에 성공했다. 여기에 한국GM GMC의 시에라도 연식변경 모델로 돌아오면서 픽업트럭 시장 경쟁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완성차 5사의 픽업 판매량은 4만2619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졌다. 2020년 3만8117대, 2021년 2만9567대, 2022년 2만8753대, 2023년 1만7455대, 2024년 1만3475대로 줄어들었다. 이는 신형 픽업트럭과 경쟁 모델 부재가 영

향을 끼쳤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는 KGM을 비롯해 기아, 한국GM이 신형 모델을 내놓으며 픽업트럭 시장을 달구고 있다.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은 지난달 13일 국내 출시 후 영업일 기준 17일 만에 계약 대수 4000대를 넘어섰다. 이는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해 국내 픽업 총판매량의 30% 정도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타스만은 출시 첫날 2200여대가 판매되기도 했다.

KGM도 최근 무쏘 EV를 출시하며 분위기 반등에 나서고 있다. 무쏘 EV는 친환경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

리를 자극하고 있다. 무쏘 EV는 전기 화물차 보조금(서울시 기준 총 838만원)을 받을 경우 3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첨단 안전 기술을 적용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걱정도 덜어준다. 차량에는 중국 BYD의 80.6kWh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를 탑재했다. 셀투팩 공법으로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배터리 팩 설계로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덕분에 무쏘 EV는 2000여명의 고객이 사전예약을 신청했다. KGM은 사전 예약은 70% 가량 계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 판매 목표를 월 500대로

잡았다.

한국GM은 지난 7일 GMC 시에라의 연식변경 모델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한국GM은 프리미엄 픽업트럭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

시에라는 6.2L V8 직분사 기술인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m의 폭발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10단 자동변속기와 GM의 독자 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적용됐다. 전장 5890mm, 전폭 2065mm, 전고 1950mm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한다. 넉넉한 2열 공간과 함께 모터사이클 2대를 적재할 수 있을 만

큼 광활한 적재 공간을 제공해 픽업트럭 본연의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최대 3945kg의 견인 능력을 갖췄다. 가격은 드날리 트림이 9420만원, 드날리-X 스페셜 에디션이 9590만원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술 고도화로 픽업의 다용도성과 SUV의 편안함이 접목되면서 레저 활동 뿐만 아니라 도심 주행 등 일상에서도 픽업트럭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최근 다양한 라인업 구축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픽업트럭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게임 체인저 급부상... '전고체배터리' 기술선점 속도

업계, 2~3년 내 상용화 시작 기대감 삼성 SDI 오는 2027년 양산 목표 LG엔솔 개발위해 파일럿라인 예정 에코프로 이르면 내년부터 대량양산

글로벌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가 지난 7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더욱 주목 받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다가올 슈퍼 사이클을 대비해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선점에 속도를 올리고 있어 2~3년 안에 상용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인터배터리'에서 기업들은 46(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액침냉각 기술 등의 선진 기술들을 선보였지만,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전고체 배터리'다.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된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것이다.

기존 액체 전해질의 경우 양극과 음극 사이의 이온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인터배터리 2025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부스에서 기술을 관람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만 가연성 때문에 화재 위험이 존재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에너지 밀도, 출력이 기존 배터리 보다 뛰어나고 전기차의 큰 취약점으로 꼽는 화재 위험도 낮다. 또 주행거리는 늘어나 성능이 지금보다 월등히 향상된다. 상용화에 성공하게 되면 배터리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기술이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을 마친 삼성SDI는 오는 2027년 하

반기 양산을 목표로 지난해 고객사들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급한 뒤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내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다. 양산 기술이 확보되면 오는 2030년께는 본격적인 상업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그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소재 기업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올해부터 양산 검토를 진행, 성과가 잘 나올 경우 2026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우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의 기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는 2027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시험에 돌입한 뒤 203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에 대량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고급형 전기차부터 순차적으로 탑재 차량을 늘려 오는 2032년에는 대부분 차량에 사용한다는 목표다. 세계 최대 배터리기업 중국 CATL 역시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소량 생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윈턴스케이프'는 올해부터 2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팩토리얼에너지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협업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EQS 차량의 도로 주행 실증에 성공했다. 기존 EQS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최대 25% 주행거리가 증가, 최대 1000km 주행이 가능해졌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모델들이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 에어컨의 'AI음성인식'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 LG전자 에어컨 '휘센' 스탠드 판매량 40% ↑ AI 탑재제품 70% 이상

LG전자가 공감지능을 갖춘 '휘센 인공지능(AI) 에어컨'을 앞세워 판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올해 1~2월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으며, 이중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2025년형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I'와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뉴I 프로'에는 AI 에이전트 'LG 퓨른'이 탑재됐다. 단순한 음성 명령 수행을 넘어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공감형 AI' 기술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너무 더워"라고 말하면 AI가 자동으로 온도를 낮추는 대신 "희망 온도를 몇 도로 조정할까요?"라고 물으며 최적의 환경을 제안한다. 또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풍향을 조절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AI바람' ▲실내 움직임을 감지해 알림을 보내는 'AI홈모니터링' ▲자동으로 열교환기를 세척하는 'AI열교환기 세척' 등 다양한 AI 기술이 적용됐다.

/이혜민 기자 hyem@

## 에코프로, 잠재 고객사 50여곳과 협력 논의

'인터배터리 2025' 전시회 참가 인니 '통합 양극재법인 프로젝트' 인기 삼성SDI·SK온·LG엔솔 등서 관심

에코프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인터배터리2025' 전시회에서 50여곳의 잠재 고객과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

은 인도네시아에 설립 예정인 '통합 양극재 법인 프로젝트'였다.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셀 회사와 현대차, 토요타, 혼다 등 국내·외 완성차 회사 최고 경영진(CEO)들이 방문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 고려아연 등 니켈 제련 관련 동종 업계 CEO들도 에코프로 부스를 찾았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의 니켈 광

물 확보 및 제련 공정 로드맵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광물 제련, 전구체, 양극재 양산을 이어가는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료 구매비와 가공비를 낮추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시제품을 생산하고, 향후 20만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한 동원그룹 사장단도 부스를 찾았다. 동

원그룹은 원통형 배터리 캔 제조회사를 인수해 이차전지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들을 안내한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는 "에코프로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질문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니켈 조달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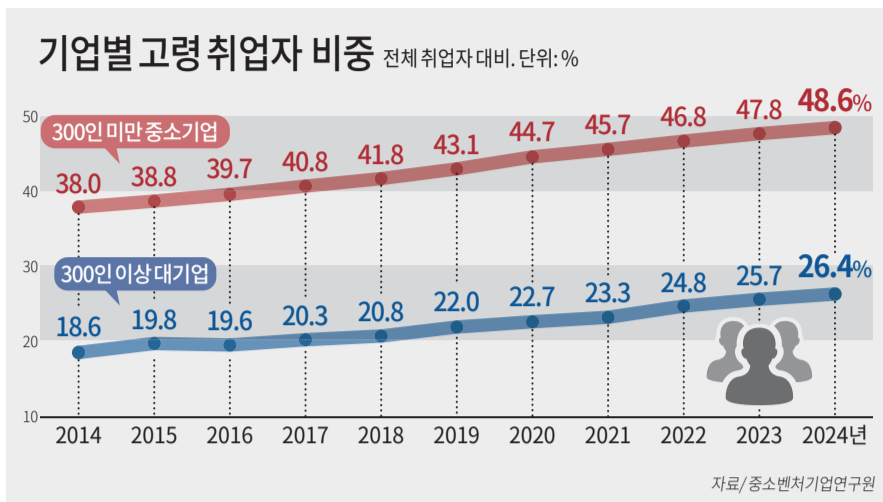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에코프로 부스를 찾은 관람객은 하루 평균 약 2만명에 달했다. /이혜민 기자

# 39세 이하 줄고 50대 이상은 늘어... 中企 '인력 불균형' 심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 고용 동향' 50세 이상 48%... 10년 새 10.6%p↑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 30%로 감소 인력 부족에도 32.3% 채용 계획 無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연구개발(R&D) 인력 비중도 점점 감소 추세다. 기업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고, 1곳은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9일 내놓은 '중소기업 이슈 포커스-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236만4000명으로 전체의 48.6%에 달한다. 2명중 1명 꼴이다. 특히 지난 2014



년 당시 38%에서 10년새 10.6%포인트(p)나 늘었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고령화(50세 이상) 비중은 대기업(26.4%)에 비해 무려 22.2%나 높은 모습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은 거꾸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취업자는 773만4000명으로 전체의 30.4%였다. 2014년 당시의 35.5%에 비해 10년 새 5.1%p 감소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고령 취업자 비

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눈에 띄게 높고 대·중소기업간 고령 비중 차이도 최근 10년간 확대됐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상담·일경험→취업→적용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 대상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급여, 유연근무장려금 등 일·생활 균형 지원금액을 종사자 규모별로 차등지원하는 등 청년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 연구위원은 "고령자 세제지원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내 R&D연구소의 연구원 숫자는 2024년 현재 20만2000명으로 대·중견·중소기업 전체 연구원의 49.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비중은 2017년 57.8%까지 증가한 이후 55.6%(2020년)→53.8%(2022년)→51.9%(2023년)에 이어 지난해 49.4%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인력 규모에 대해 28.9%는 '부족'(매우 부족+다소 부족)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67.9%였다. 하지만 '많다'는 3.2%에 그쳤다. 589개 기업이 답변한 결과다.

중소기업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이다. 올해 인력수급 환경 전망에 대해선 24.4%가 '악화'(매우 악화+다소 악화)를 꼽았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72%였다. '개선'될 것이란 답변은 3.6%였다. 인력수급 환경 전망에 대해서도 '악화'(23.8%)가 '개선'

(12.4%)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올해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해선 32.3%가 '없다'고 밝혔다. '축소 채용'도 12.1%였다. 10곳 중 4곳이 채용계획이 없거나 줄이겠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확대 채용'은 12.9%였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감소세가 연구개발 등 전문인력에서 시작해 이제는 일반인력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계고 졸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지원 강화 ▲취업 단계별로 청년 대상의 맞춤형 연계 지원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노·사 간 상생 경영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미들마켓 M&A, 기업 성장 새 동력으로 부상

대명소노그룹, 티웨이항공 인수 호텔·항공산업 간 시너지 창출 한화호텔 아워홈, 급식업 재진출

최근 기업 투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미들마켓 M&A가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기업 M&A와 달리 자금 조달 부담이 적은데다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평이다. 이에 M&A선진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들마켓 M&A가 부상하는 분위기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구 게임빌)의 컴투스 인수는 미들마켓 M&A의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게임빌은 지난 2011년 설립됐으며 피쳐폰 모바일 게임개발에 주력해왔다. 게임빌은 본업 강화를 위해 같은 장르를 개발하고 있는 컴투스를 M&A대상으로 지목했고 2013년 이영일 컴투스 창업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21.37%를 총액 700억원에 인수했다. 2021년 게임빌은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바꾸며 멀티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말 이용국 컴투스홀딩스 경영 고문은 스타트업 M&A 활성화 주제 토론회에서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



대명소노타워 전경. /대명소노그룹

은 적극 임해야 한다"며 "컴투스홀딩스의 성장 곡선에는 M&A가 핵심 역할을 했다. 신속한 M&A가 2차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명소노그룹도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티웨이항공의 경영진·사명교체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태 설립은 지난달 26일 티웨이항공 지분 28.02%를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를 2500억원에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8월 확보한 티웨이항공 26.77%를 더해 지분 총 54.79%를 확보하게 됐다. 티웨이항

공 지분 54.79%를 얻기 위해 대명소노그룹이 투입한 자금은 총 4397억원이다. 대명소노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20개 호텔·리조트와 항공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역시 아워홈 인수로 급식사업을 넘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화는 지난달 11일 아워홈 지분 58.62%를 총 869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 100%를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인수건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직접 주도한 만큼 될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기업 웅진도 상호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상호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저출산·인구감소로 교육 업계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상호 사업을 융합해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프리드라이프의 인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9000억~1조원을 보고 있다. 웅진은 ▲교육 ▲정보기술(IT) ▲레이저 등 계열사 상품들에 상호 서비스를 활용한 결합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LX하우시스, 체험형 팝업 디자인 '트렌드십'

이달 30일까지 서울 북촌서 개최

9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전통과 트렌드가 공존하는 서울 북촌에 위치한 행사 전문 공간 '워크엘리'에서 트렌드십을 개최한다. LX하우시스는 지난 2023년 서울 성수동·을지로 그리고 지난해 이태원에 이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지역에 다시 한번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해 2030세대 고객과의 접점을 꾸준히 넓혀 나간다는 전략이다.

트렌드십에서 LX하우시스는 올해의 디자인 트렌드 핵심 키워드로 함께할 때 생성되는 새로운 에너지를 의미하는 '시너지-SY(E)NERGY'를 제안한다.

개인화가 가속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연대에 대한 갈망이 커지며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서로 다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어



LX하우시스가 이달 30일까지 서울 북촌 워크엘리에서 '2025 트렌드십'을 진행한다.

우려져 신선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너지-SY(E)NERGY'가 주요 디자인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번째 트렌드십 공간도 '차재는 공간이 입는 옷'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LX하우시스의 인테리어 제품과 패션의 만남을 쇼룸 공간으로 구현한 '메종 드 시너지(Maison de Synergy)'로 꾸몄다. /김승호 기자

## 한화 방산3사, AI·무인화 로드맵 공개

2028년까지 플라잉업 개발 계획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8년까지 무인차량 플라잉업-업을 모두 개발할 계획이다. 또 한화시스템의 무인수상정과 저궤도 위성 통신체계, 한화오션의 무인전력 지휘통제함 등을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AI와 무인화 기반의 '육해공 통합 솔루션'을 제시했다.

한화방산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는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연구개발)캠퍼스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주관 제7회 다과고(DAPA-GO) 2.0 소통 간담회'에서 첨단 AI(인공지능)·무인화 체계 개발 현황 및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다과고는 방사청이 현장을 직접 방문

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방위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다과고에서 미국 FCT(해외 비교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을 비롯해 자체 개발한 차세대 무인 차량 '그룬트(GRUNT)', 올해 국내 최초로 전력화하는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등 다양한 무인 차량을 소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8년까지 소·중·대형급의 차륜형과 궤도형 무인 차량 제품군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글로벌 무인 차량 기업인 밀렘 로보틱스와 공동 기술 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에이스침대, '숙면 보존의 법칙' 캠페인 선포

3개 영상 통해 유티유트 이미지 전달

에이스침대가 신규 디지털 콘텐츠 '숙면 보존의 법칙'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9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이번 캠페

인 영상에는 과학 전문 커뮤니케이터 퀘도와 함께 '숙면 보존의 법칙'이라는 테마로 침대과학을 보다 친근하고 유티유트 있게 탐구하는 모습을 담았다. 과학에 진심이지만 어딘가 엉뚱한 매력을 지닌 퀘도가 '괴짜 과학자'로 등장해 연

구실을 벗어나 실생활에서 침대의 성능을 확인하는 등 흥미롭게 실험을 진행한다.

퀘도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매력 포인트인 '공대 개그'로 웃음을 더하고, 여기에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설정까지 곁들여 소비자들의 공감을 유도했다.

/김승호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통신3사, AI 가속화 발 맞춘다... 'AIDC' 기술 경쟁력 강화

〈AI 전환〉

〈AI 데이터센터〉

**SKT** 총 4대 사업모델로 세분화  
**KT** GPU 할당 에이전트 기술 선포  
**LG U+** 업계 1위 AWS와 '맞손'



영상 SKT CEO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 기자간담회에서 AI 사업 고도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통신3사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전환(AI) 가속화가 AIDC 수요를 촉진시키며 기존 이동통신 사업의 정체에 직면한 통신 3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세르비코 컨설팅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AIDC 시장은 49억2000만 달러에서 오는 2033년에는 약 2017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40.1%에 달할 전망이다.

실제로도 AIDC 시장은 산업계 전반의 AI 기반 기술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AIDC 구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일반 데이터센터(IDC)와 AIDC는 설계, 하드웨어,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IDC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웹 서비스, 데이터 저장 및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한다면, AIDC는 AI 대량 연산 수행에 최적화돼 있으며 머신러닝 및 딥러닝 모델 학습·추론을 위한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프로세서 또한 IDC가 중앙처리장치(CP

U) 중심인 데 비해 AIDC는 그래픽처리장치(GPU)·텐서처리장치(TPU) 등 병렬 연산 프로세서를 활용한다.

AIDC 시장은 성장 전망이 밝은 편이지만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성숙기에 진입해 성장세가 느려지는 추세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조7000억 달러 수준이며, 같은 기간 전세계 5G 가입자 수는 16억 명을 기록했다. 2031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은 5.1%로 추정된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또한 5G 보급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수순으로, 추가 인프라 구축 수요가 감소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개선될 전망이지만 동시에 가입자 수의 급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MWC25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격적인 AI 수익화를 위한 'AI 피라미드 2.0' 전략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단계로 AIDC 사업을 꼽았다.

유영상 사장은 "AI DC 사업은 알라카르테(맞춤형 상품) 형태를 갖춰 모든 유형의 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AI 에이전트 B2B와 B2C도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지속 제공하는 서비스 혁신과 함께 자강과 협력 기반으로 AI 테크 역량도 지속 강화해 AI 매출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는 AIDC 사업을 구독형 AI 클

라우드 GPU 구독 서비스(GPUaaS), 소규모 모듈러 AIDC, 단일 고객 전용 AIDC, 하이퍼스케일급 AIDC 등 총 4대 사업 모델로 세분화해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KT는 기업의 AI를 위해 소규모 AIDC에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GPU 할당 에이전트 기술을 선보였다. 실시간 GPU 자원 현황과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GPU 자원을 할당하고 스케줄링함으로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프로젝트 우선순위와 GPU 활용률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LG유플러스도 AIDC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세계 클라우드 업계 1위인 AWS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AWS 측의 협력 제안으로 양사가 소비러(자립형) AI, AI콘택트센터(AICC), AI 컨설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협력방안을 더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잇따라... 해결방안 필요

AI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급증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 확대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 이미지.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AI 학습 데이터 관련 국내외의 소송 및 기술·정책 현황을 분석한 '소프트웨어(SW)·저작권 동향 리포트' 최신호(2025년 4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3건이었던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은 작년 미국에서만 3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며 관련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11월 인도 최대 통신사인 아시아 뉴스 인터내셔널(ANI)은 오픈AI가 자사의 뉴스 콘텐츠와 데이터를 AI 훈련에 무단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ANI를 출처로 잘못된 정보를 생성했다며 오픈AI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NI는 2억3000만달러(약 3340억원)의 손해 배상과 함께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자사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다.

같은달 캐나다의 주요 언론사 5곳도 콘텐츠 무단 사용 등을 사유로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또 지난 2023년 미국작가협회는 오픈AI가 GPT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창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타임스는 자체 생산한 뉴스 기사를 챗봇 훈련에 무단 사용한 것을 이유로 오픈AI를 고소했다.

이들 소송의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판결이 최근 미국에서 나왔다. 올 2월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사상 첫 판결이다.

앞서 톰슨 로이터는 지난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 엔진 스타트업인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인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이용했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인텔리전스사의 데이터 사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 이용이 아니며 로이터와 경쟁을 의도했을 뿐만 아니라, 로스 인텔리전스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로이터의 대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W·저작권 동향 리포트에 의하면, 현재 AI의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술적 보호 ▲라이선스 모델 도입 ▲라이선싱 플랫폼 운영 ▲기여도 보상 시스템 적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

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이 웹사이트 의 크롤링(자동으로 웹사이트의 데이터

를 모으는 행위)을 통제하는 기술로 AI 크롤링 봇의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AI 기업들은 콘텐츠 제작자들과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작가협회는 라이선싱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체결,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보상을 받고 창작품 사용을 허락해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AI가 학습한 콘텐츠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SPC는 "AI 관련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부터 AI 모델 학습, 결과물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저작권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SW의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콘텐츠 회사와 AI 기업 간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참고해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AI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iki@

## LG U+·LG AI연구원, '사람 중심 AI' 개발

'원팀 AI' 전략 소개

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이 함께 '사람 중심의 AI' 개발에 나선다.

LG의 온디바이스 AI 기술로는 '익시오(IXI-O)'가 있다.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은 기존 CPU를 사용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한층 고도화해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사용하는 '온디바이스 sLM'을 개발 중이다. LG유플러스는 경량화 모델 중 뛰어난 성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LG AI연구원의 '익사원'을 기반으로 통신 서비스에 특화된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LG AI연구원은 최신 버전인 익사원 3.5 대비 모델 크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LG유플러스는 지난 5일 MWC25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간담회를 열고, LG AI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인 '원팀 AI'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은 '사람을 돕고, 편리함을 제공하며, 동시에 안심과 신뢰를 지키는 AI'를 만들기 위해 고객의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고도화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은 지난 5일 MWC25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함께 추진 중인 '원팀 AI'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은 현지 간담회에 참석한 LG유플러스 이상엽 CTO(왼쪽)와 LG AI연구원 이홍락 CSAI의 모습. /LG유플러스

모델을 개발해 익시젠에 탑재할 계획이다. 익시오는 통신업계 최초 고객의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다.

/김서현 기자

## "폭언으로 직원 보호하는 'KT 통화매니저'"

통화 종료·안내 멘트 자동 송출

웨어 설치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KT가 폭언으로부터 공무원과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는 'KT 통화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KT 통화매니저는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영입, 마케팅, 민원 대응, 고객 상담 등 우선전화 업무를 PC와 앱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KT 통화매니저는 통화 종료 기능 외에도 핵심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통화 연결 전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와 '폭언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 멘트를 자동으로 송출하고,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한다.

KT 통화매니저에 새롭게 도입된 기능은 과도하게 길어지는 통화나 폭언이 발생하면 고객 또는 민원인에게 경고 멘트를 송출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 별도의 전용 전화기나 장비 없이 소프트

또한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 시 상대방에게 우선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사생활 보호 기능과 AI 기반 통화 내용 텍스트 자동 변환(STT)·내용 요약·검색 등 부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 민원 응대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서현 기자

# 발행량 21% ↑... 금리인하 기대감 ‘채권 강세’ 이어간다

금투협, 지난달 채권 발행액 86조 회사채 20조... 전월비 60% 급증한 기준금리 0.75% 인하 전망 이달까지 채권금리 하락 이어질 듯

#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사업 자회사 SK 엔무브는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2조원이 몰리면서 당초 목표액인 1500억원의 2배를 증액한 3000억원의 회사채를 4일 발행했다. 금리도 좋은 조건이었다.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 대비 3년물은 -20bp(베이스스 포인트·1bp=0.01%포인트), 5년물 -10bp, 10년물 -45bp로 각각 3.004%, 3.161%, 3.386%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 파르나스호텔은 당초 목표했던 500억원을 2배로 증액해 총 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를 웃도는 3410억원의 매수 주문이 몰린 덕분이다. 파르나스호텔은 이번 발행에서 민간 채권평가사 평균 금리(민평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확보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기업들이 회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빚을 갚거나,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

(금리)를 붙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채권 발행액은 86조177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 달(71조3713억원)보다 20.75%

(14조8062억원) 급증했다. 전년 동기 71조4619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특히, 회사채 발행량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달 국내 기업의 회사채 발행액은 19조7078억원으로, 지난1월(12조2801억원) 대비 60.48%나 증가했다.

기업(발행사) 발행 수요와 큰손들(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도 연초부터 회사채 시장에 큰 장이 활짝 열린 이유다. 기업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앞다퉈 회사채 발행을 앞당기고 있다. 지난해 은행과 회사채 시장에서 빌린 돈을 갚고, 경기침체를 대비한 비상 실탄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증권사의 채권 담당자는 “높은 금리로 회사채 발행을 미뤘던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회사채 투자심리가 회복되자 기업들은 발행 계획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 여건이 좋아진 탓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 금리 불

확실성이 사라졌다.

조이스 장 JP모건 글로벌 리서치 총괄 대표는 지난 5일 세계경제연구원 ‘2025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 트럼프 2기 출범의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미국 관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성장 우려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0.75% 포인트(p)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금리 하락세는 3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GBI 편입으로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 개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WGBI 편입으로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 달러의 국채 자금이 유입되면 0.2~0.6%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DMA계좌 이용 불법공매도 가능성 높아”

(직접주문전용선)

공매도 재개 앞두고 투자자들 불신 “보다 철저한 감시체계 마련하고 처벌강화 등 법적제재 수위 높여야”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법 공매도 감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가 오는 31일부터 재개된다. 공매도 가능 종목도 금지 전 350개에서 2700여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에게 ‘기술어린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등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또한 공매도 재개 이후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공매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동현 서울

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일부 해소됐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현재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총수익교환(TRS) 거래 등을 활용해 사실상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에도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룬 숏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해 한국 주식 시장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거래소는 7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소재 서울사무 홍보관에서 미래에셋증권을 2024년도 유가증권시장 우수 IB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왼쪽부터)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 KRX, 유가증권 우수 IB ‘미래에셋증권’ 선정

한국거래소가 미래에셋증권을 2024년 유가증권시장 우수 기업금융(IB)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IB의 적극적인 신규 상장 기업 발굴 유도 및 충실한 기업실사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우수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실적 등 시장기여도와 IPO 업무수행의 적정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녹록지 않은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IB업계의 노력으로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증시 입성 등 성과가 있었다”며 “거래소는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요예측과열을 정상화하고, 의무보유확약 확대 등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서학개미, 美 레버리지 ETF 최대 50% 손실

국내 투자자 매수 상위 20개 종목 최근 한달간 10개 종목 손실 기록

서학개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통상 행보에 대규모 손실의 늪에 빠졌다. 특히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종목들은 최근 한 달간 손실률이 20~50%에 달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1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상위 20개 미국 주식 종목의 순매수액 총합은 31억2008만달러(약 4조5072억원)에 달했다.

국내 한 주요 증권사의 개인 고객 빅데이터 자료로 이들 20개 종목의 1개월간 ‘계좌(고객) 평균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절반인 10개 종목이 손실을 기록했다.

계좌 평균 수익률은 특정 기간 내 해당 종목을 거래한 증권사 고객들이 거둔 평균적인 수익률을 뜻한다.

순매수액 1위인 ‘디렉션 테일리 테슬라 2배 ETF’는 원화 환산 기준으로 한 달간 계좌 평균 수익률이 -30.69%를 기록했다. 이 ETF는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기법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변동폭이 커 투자 난도가 높다. 이 종목

의 한 달간 국내 순매수액은 7억8500만 달러(1조1355억원)에 이른다.

손실이 가장 컸던 종목은 다른 레버리지 ETF인 ‘2배 이더리움 ETF’로 계좌 평균 수익률이 -47.88%로 나타났다.

그 외 ‘그레닛셔어즈 2배 코인 ETF’(-39.95%), ‘일드맥스 코인 옵션 인컴 스트레티지 ETF’(-30.96%), ‘일드맥스 MSTR 옵션 인컴 전략 ETF’(-28.42%), ‘디렉션 반도체 3배 ETF’(-24.40%), ‘프로셰어즈-2배 블룸버그천연가스 ETF’(-21.87%) 등도 큰 손실을 기록했다. 이 ETF들은 모두 기초자산 가격 변동률 2~3배로 증폭하거나 암호화폐처럼 애초 변동성이 극히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 ETF’들로, 현재 한국 금융기관에서는 출시·유통할 수 없는 상품들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주가 띄워 차익실현... 불공정거래 적발

금융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조치 의결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 처럼 홍보하고,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수 백 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이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

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다.

/나유리 기자 yu115@

# “HMM 매각 자금, 새 투자로” 해운·항만·에너지 성장 가속

**인터뷰**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

HMM 조속 매각 추진 신사업 투자 배당보다 해양 신산업 확장 더 중요  
중견·중소 선사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벌크·탱커 보강 후 물류 사업 확장

“신해양산업 먹거리 강화를 위해 HMM의 좋은 주인을 찾아 빨리 매각하고 싶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7일 HMM 이사회 직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HMM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HMM은 우리나라 해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업인 만큼 좋은 주인을 찾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세계 8위 선사인 HMM을 대한민국 대표 선사이자 국가 전략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 기업이 반도체, 컴퓨터 등 IT 제품을 제외하면 90%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해상 공급망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사장은 “HMM의 좋은 주인을 찾기 위해 어떠한 지배구조가 좋을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해진공이 매각 방향을 정리한 뒤 산업은행 등과 매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HMM 지분은 산은 33.73%, 해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한국해양기자협회

진공 33.32% 등 정부가 67.05%를 차지하고 있다. 오는 4월 정부가 보유한 7200억원 규모 연구전환사채(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 36.02%, 해진공 35.67 등 정부 지분은 71.69%까지 확대된다. 시가총액 기준 14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해진공은 HMM 졸업 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국가 해운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해진공은 ▲해양금융공급 확대 ▲글로벌 수준 해양정보 서비스 제공 ▲디지털 전환(DX) 지원 ▲친환경 대응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3조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안 사장은 “해진공이 HMM으로 시작됐지만 해운을 넘어 항만물류까지 3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양에너지, 해양자원개발, 해

양레저관광 등 신해양산업에서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견, 중소, 연안 선사들도 적극 지원하며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HMM 매각 후 배당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수익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사장은 “HMM을 팔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다”며 “HMM은 배당도 별로 안하는데, HMM 팔아서 해양신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HMM이)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주당 600원을 지급했는데 배당수익을 지키는 것보다 매각하고 해양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해진공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HMM 이사회에서는 최원혁 전 LX판토스 대표를 사장에, HMM 이점업 전무를 부사장에 내정한 것과 관련해 “현 경영진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모두 열심히 일했고 실제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HMM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해운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SK해운 인수와 관련해 안 사장은 “HMM이 컨테이너선 쪽은 강한테 벌크선 같은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탱커까지 좀더 확장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 항만과 물류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HMM이 SK해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가격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韓-체코 원전협력 넘어 경협 확대 매진”

코트라, 에너지·첨단산업 등 협의

3월 말로 예정된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체코와의 에너지·첨단산업 경제협력 이행방안 협의에 나섰다.

9일 코트라에 따르면, 강경성 사장은 지난 5~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체코 경협 주무기관인 투자청(CzechInvest),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경협 확대 이행방안을 협의했다.

강 사장은 지난 5일 투자청을 방문, 안미할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체코 신규원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2024년 7월),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2024년 9월)으로 상호협력수요가 커진 가운데, 지난 2월 투자청-코트라 간 MOU 체결에 이어, 에너지(원전, 송배전, 수소 등)와 첨단산업 전반으로 경협 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미할 청장은 앞서 지난 2월 방한시 “한국기업들의 체코에 대한 관심이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의 첨단기술 기업과 협력을 바란다”고 화답한 바 있다.

체코는 중유럽의 제조엔지니어링 산업국가로 동아시아의 제조엔지니어링 산업국가인 한국과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첨단산업, 방산, 의료 분야 협력에 관심이 높다.

체코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경제외교 전담기관 중 하나로 지난 9월 경제외교시 비즈니스 파트너링 상담회, 한-체코 수소 상담회·포럼 등을 함께 개최하며 협력해 왔다. 강경성 사장은 체코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양 기관이 1989년 MOU 체결 후 36년째 협력중인 데 대한 감사를 표하고, 원전에 이은 경협 확대, 경제외교 협력과 경협 논의사항의 기업차원 실행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유럽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주재자 체코를 방문한 강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 팀코리아 기업으로 활약중인 두산의 체코 투자법인 두산스코다파워도 방문, 한수원과 두산 등 팀코리아 관계자들과 원전 수주지원과 전력(원전, 송배전 등) 기자재 수출 방안도 협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단 내 디지털·에너지 시설에 1조 투입

산업부, ‘환경개선’ 우선협상 선정

연료전지발전, 데이터센터, 임대형 기숙사·업무 복합시설 등 산업단지 내 저탄소화·디지털화 시설, 근로·정주시설 확충에 총 1조원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개 사업을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는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최초로 조성된 펀드로, 지난해까지 정부재원 1조 3400억원으로 민간투자 8조 1824억원을 유치, 7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연료전지발전

(익산제2일반산단) ▲데이터센터(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임대형기숙사·복합시설(익산국가산단) ▲호텔·물류 복합시설(서울디지털국가산단) ▲스마트팜(원주문막일반산단) 등이다. 이들 5개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부 예산 1170억원과 민간투자 9427억원을 합쳐 총 1조 597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4개가 부산, 원주, 익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연료전지발전과 스마트팜 2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운영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투자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AI로 반도체 등 산업기술 혁신 속도 높인다

산업부, 1차 수요과제 74건 공고  
연내 2차로 30개 추가 예정 계획  
“AI가 기술혁신 좌우… 과감 투자”

인공지능(AI)을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계 기술개발에 접목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AI를 활용해 기술혁신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부가 발표한 ‘AI+R&D 추진 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가 산업계 AI 활용에 본격 나선 이유는 업계의 AI 활용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지난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 등 총 13개 산업 분야에서 881건에 달하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까지 업종별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해 수요과제 74개를 1차 공고했고, 상반기 내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 산업 연구개발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2차로 30개 이상의 수요과제를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함으로써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이다. 기업과 연구소 연구자들은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별 신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해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업 공동활용 자율 실험실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시험사업으로서 표면처리용 도금액을 자율실험으로 개발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과제를 상반기 내 공고해 착수한다. 산업부는 AI 자율실험실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반영,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 세계 기업, 기술, 인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대화형 테크-GTP’는 올해 4월부터 140여개 산업현장 기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이후 5개국(미국, 중국, 일본, EU, 한국)에 등록된 1억 1000만 건의 특허와 최근 발표된 2억 2000만 건의 국내외 논문을 학습해 10월부터 기술 정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누적 무역기술 장벽 건수 평년대비 18% ↑

국표원, 2월 TBT 260건 발표

올해 2월까지 각국의 기술규제 등 비관세무역장벽이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수는 총 260건으로, 1월(598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2월 누적 기준 858건으로, 최근 5년 평균(729건)보다는 18% 증가했다.

WTO 회원국은 BTB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는 작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할랄인증 규제를 한중

강화했다.

우선, 기존 인도네시아 올라마위원회(MUI)의 할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재고를 소진 또는 새롭게 도입된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할랄 라벨에는 할랄 제품인증청(BPJP)에서 발급한 인증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을 발급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전 할랄제품인증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터 필터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독성물질 목록에 9개 화학물질 추가 등 자동차 안전 규제를 강화했고, 대형 냉장·냉장고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26건을 통보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www.sjame.co.kr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

#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 2025. 3. 25.(화) ~ 3. 28.(금)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일원(경북 상주시)

### 전시분야

자율작업, 농업로봇, AI,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기계 전시  
일반 농기계·자재 전시(수도작, 밭농업, 축산, 수확 및 가공, 시설농업 등)

### 부대행사

학술심포지엄, 시설원예수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밭농업기계 담당자  
현장 교육, 승마로봇체험, 경품응모 등

### 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 : 041-411-2135~7  
상주시 농업정책과: 054-537-7441~2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상기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상주시 주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포항시, 국가 핵심 녹색산업으로 '배터리 순환이용' 육성

환경부·경북도와 업무협약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박차  
클러스터 완공 이후 활성화 강화

포항시가 환경부·경북도와 손잡고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포항시는 지난 7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포항시와 환경부, 경북도는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국가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호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배터리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최근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7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배터리순환이용 기업 현장간담회가 개최됐다.

업무협약 이후 참석자들은 에코프로, 에너지머티리얼즈, 피엠그로우 등 배터리 재활용 지역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완섭 장관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과 이강덕 시장은 간담회 이후 오는 6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준공 예정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현장 방문해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완공 이후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및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연구 지원단지와 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국가 차원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계획수립과 기술개발 지원,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자원순환 체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를 시작으로 사용후배터리순환이용 산업기반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왔다"며 "앞으로 환경부, 경북도와 함께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에 적극 협력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강덕 시장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배터리 순환이용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있는 포항의 현황을 설명하고 녹색산업 성장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지난 2009년 폐지된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의 재설치 등을 건의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신안군

#### '빈집 리모델링' 7000만원 지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의 경관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이동식주택을 설치한 뒤 5년~7년간 신안군에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신안군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확보 공사비를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동식주택의 경우 구매 및 설치비를 동일한 금액까지 지원한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부산시

#### 지역 특화 일자리사업 본격화

부산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며 실효성 있는 '부산형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구·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다.

사업은 구·군과 일자리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연계 일자리를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광주시, 3대 문화시설 유치 박차

문체부 '문화한국 2035 프로젝트'  
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유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화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설립하기 위한 '문화한국 2035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광주시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등 3대 문화시설 유치를 나선다.

광주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유치를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예산 확보와 미술자료, 민주역사자료 수집 지원 등 해당 기관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지난 2023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미술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30년 전통의 광주비엔날레 개최 도시와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역특화형 미술관 건립 비전을 담은 구상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사관 설립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민주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민주화역사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검토 등 문체부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사관이 광주에 들어서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예술품, 관광개발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조직위원장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서울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전남도

## 전남도-서울시, '여수세계섬박람회' 맞손

섬 관광 활성화, 공동마케팅 등 협력

전라남도,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 관광 활성화, 주요 행사 사전 공동 마케팅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썬)YC-TEC 회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협약식에 이어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비전과 대한민국 섬 정책에서의 전남의 역할, 미래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섬의 가치 등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아라뱃길을 따라 서울과 여수를 잇는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은 전남도에서 올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섬과 섬을 잇는 '섬섬곡곡 연안크루즈 시범 운영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강에서 출발해 여수로 이어지는 특별한 크루즈 노선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흥행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 경북도, 결혼·육아에 부담주는 관행 타파

'4대 문화 운동' 전개

경북도가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를 위한 '4대 문화 운동'을 펼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4대 문화 운동은 ▲부담 없는 결혼(적은 비용으로 결혼하고 크게 행복한 작은 결혼식 문화) ▲행복한 출산(비혼 출산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가족관계 인정 문화) ▲즐거움 육아(아이들을 최우선하고 육아 휴직을 육아 근무로 우대하는 문화)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모두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실천 문화)으로 돼 있다.

경북도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민간 주도인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와 협업해 확산시키고 카드 뉴스 콘텐츠 제작 배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챌린지, 팝업 이벤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서 문화 운동을 알리고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 운동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시군별 1곳 이상 공공 예식장 환경 개선, 작은 결혼식 혼수비용 지원, '웰컴키즈존' 및 일자리 편의점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대구시, 공무원 채용 경쟁률 올라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영향

거주지 제한 요건이 폐지된 대구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

대구시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15명을 선발하는 보건연구직 등 경력경쟁채용 3개 직렬에 모두 385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25.7대 1

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결과 지역 외 응시자는 266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69.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의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인 35.4%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거주지 요건 폐지로 인해 대구시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전국 의 응시생들이 활발히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경주시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경주시는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교육비원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원활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 60만원)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양산시

####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매출 11억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문을 연 양산시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이 9개월 만에 누적 매출액 11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매출액 중 10억원이 농가에게 직접 환원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 회원 수도 3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수수료 10%를 제외한 전액을 농가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지역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홈플러스, 순차적 대금지급 시작 속속 납품 재개 나서는 식품업체

## 기업회생 절차 후폭풍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납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식품업체들이 납품 재개에 들어갔다. 협력사 이탈로 영업 중단 고비를 맞았던 홈플러스는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납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품기업 가운데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 3곳이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했거나 재개 예정이다.

오뚜기는 지난 6일 납품을 중지했다가 다음 날 납품을 재개했다. 롯데웰푸드와 삼양식품도 7일 오후 늦게 지연된 대금을 지급받고 납품 재개를 결정했다.

롯데웰푸드는 8일 다시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삼양식품은 오는 10일부터 납품할 예정이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동서식품·팔도 등은 여전히 납품을 중단한 상황이며 이 여파로 홈플러스 매장의 매대 일부는 비어있다.

한 식품사 관계자는 “협상이 완료돼 납품 재개 결정을 내린 곳이 있는가 하면 협상을 진행중인 곳도 있다”며 “보

오뚜기·롯데웰푸드·삼양식품 대금 지급받고 납품 재개나서

롯데칠성음료·동서식품·팔도 여전히 ‘중단’... 일부 공급차질

홈플러스 “현금잔고 약 3000억 일반 상거래채무 지급 문제없어”

통 납품 전 날 발주를 받기 때문에 납품 재개 협상이 되었다더라도 큰 매장부터 제품을 공급하느라 작은 매장에는 일부 제품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홈플러스 납품사 간담회는 당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것이 간담회 취소의 배경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태를 수습하기에 나섰다. 납품사들은 홈플러스가 큰 거래처 중 하나이기에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홈플러스가 매달 도래하는 2000억원 안팎의 납품 대금 등을 지급하려면 정

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영업력이 약화하면 현금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납품사들의 걱정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약 3000억원, 이달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돼 일반 상거래채무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상품을 매장과 온라인에서 현금 판매하기 때문에 대규모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에 이러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한 홈플러스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된 부동산 자산만 4.7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약 2조원)보다 자산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채무 부담이 경감되면 홈플러스는 영업활동을 통해 한 달에 1000억원 이상의 잉여현금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경영(기업운영) 가치 또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화이트데이를 맞아 초콜릿, 캔디 그리고 스테이크 신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이마트

## 이마트, 화이트데이 맞아 초콜릿 등 30% ↓

14일까지 앱에서 할인쿠폰 제공

이마트가 화이트데이(3월14일)를 맞아 할인 혜택과 신상품을 선보인다 고 9일 밝혔다.

먼저, 이달 14일까지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콜릿, 캔디, 젤리 전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행사 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화이트데이에 선물하기 좋은 캔디·초콜릿 대표 품목을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츄파춥스 미니(240입)’,

‘페레로로쉐 T24 다이아몬드·페레로로쉐 컬렉션 T24’ 등이 포함됐다.

화이트데이 맞이 신상품과 단독 상품도 선보인다. 신규 상품으로는 ‘다이롱 케오데오 망고젤리·그린 망고젤리’, 단독 상품으로는 하트 모양의 안심 스테이크가 준비됐다. ‘화이트데이 안심 스테이크’는 이마트 전점에서 이달 13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화이트데이 분위기를 더해 줄 와인 상품을 이달 14일까지 할인가에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 롯데백,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팝업

데뷔 2주년 기념 롯데월드몰서 운영

롯데백화점이 국내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데뷔 2주년을 기념해, 이달 16일까지 롯데월드몰에서 ‘해피 플레이브 데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플레이브는 지난 2023년 3월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지난달 미니앨범 ‘칼리고 파트 원’을 발매하고, 국내 버추얼 아이돌 최초로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 진입한 바 있다. 버추얼 아이돌은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이돌을 뜻한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플레이브 관련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시 공간 ‘해피 플레이브 파티’에서는 지난 2년간 플레이브와 팬들이 함께한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또, 포토존 ‘해피 플레이브 모먼트’에서는 멤버들과 함께 기념사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진행되는 ‘플레이브’ 데뷔 2주년 기념 팝업. /롯데백화점

진도 촬영할 수 있다.

데뷔 2주년인 이달 12일 저녁 7시부터는 약 30분간 아트리움 상단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플레이브의 감사 인사 영상이 송출된다. 팝업스토어 입장 예약 없이도 월드 몰 2층과 5층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2주년 기념 공식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 포토 카드부터 응원봉, 의류, 액세서리, 문구 등 70여종의 굿즈가 준비됐으며 특히, 이번 팝업에서는 플레이브 캐릭터 상품인 ‘므메미무’를 처음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제로슈거 소주 대표주자 ‘새로’ 인기몰이

롯데칠성음료, 앰배서더 새로구미 선정 대한민국 광고대상 등서 3관왕 달성

롯데칠성음료가 2022년 9월 첫 선을 보인 ‘새로’가 제로 슈거 소주의 대표 주자로 올라섰다.

새로는 기존의 소주 제품과는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아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소주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해 증류식 소주를 첨가했으며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새로는 한국의 맛과 아름다움을 담은 도자기의 곡선미와 물방울이 아래로 흐르는 듯한 세로형 홈을 적용해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감성을 녹임과 동시에 투명성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출시 이후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을 돌파했으며, 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 1억병을 돌파했다.

‘새로’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출시 2년여만인 2024년 10월에는 누적판매 5억병을 돌파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주의 한 브랜드로 자리잡았으며, 작년 봄에는 진짜 살구 과즙을 더한 ‘새로살구’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새로는 브랜드 앰배서더도 특별하다. 한국의 전래동화부터 최근의 영화, 드라마에서 다양한 느낌의 매력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구미호에서 따온 ‘새로구미(새로+구미호)’를 출시 때부터 브랜드 앰배서더 캐릭터로 선정하고, 제품 전면에 배치해 기존 소주 제품들과의 차별되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출시 초 구미호가 새로와 함께 ‘새로구미’로 다시 태어난 이후 에피소드 중

심의 ‘소주 새로 탄생 스토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마케팅과 광고 캠페인을 이어가며, 새로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한국적 문화 요소를 담은 다양한 창작물을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그 결과, 202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고 시상식 중 하나인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포함한 ‘유튜브빅스’, ‘K디자인 어워즈’와 같은 광고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국내 소주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새로’가 제로 슈거 소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주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새로살구(왼쪽)와 새로. /롯데칠성음료

## 한섬, 프랑스서 ‘타임 파리’ 프레젠테이션

여성복 브랜드 ‘타임’ 첫 선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2025년 가을·겨울 파리 패션위크’ 기간인 지난 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타임 파리’ 단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타임 파리’는 한섬의 프리미엄 여성복 브랜드인 ‘타임’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글로벌 제품군이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타임 파리’의 디자인 콘셉트에는 자연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의미가 담겼다. 초록색 상가디건과 갈색 스웨이드 발목 부츠 등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비

롯해 유광 가죽 코트, 둥근 디자인 재킷 등 여행을 콘셉트로한 총 200여 제품을 선보였다.

프레젠테이션은 13세기에 파리의 수도사들을 위해 지어진 건축물 ‘폴레주 데 베르나르탱’에서 진행됐다. 고딕 양식 인테리어 공간과 ‘타임 파리’ 제품군이 조화를 이뤄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완성도 높은 행사였다는 평을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 쿠광 알럭스에 ‘메종 마르지엘라’ 입점

쿠광 산하 럭셔리뷰티 전문 쇼핑 서비스 ‘알럭스(R.LUX)’가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를 신규 입점한다고 9일 밝혔다.

쿠광에 따르면, 알럭스에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향수 라인의 대표 컬렉션인 ‘레플리카’ 시리즈와 ‘레이지 선데이 모닝’ 바디케어 제품군이 입점한다. 알럭스는 향수와 바디 제품을 시작으로 캔들, 디퓨저 등으로 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레플리카’ 컬렉션은 욕조, 바닷

가, 요트, 도서관 등 특정 장소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향수 라인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프롬 더 가든 오브 푸왈렛(EDT)’, ‘레이지 선데이 모닝 오브 푸왈렛(EDT)’ 등이 있다. ‘레이지 선데이 모닝’ 바디케어 제품군으로는 샤워젤, 바디로션, 핸드크림 등이 포함됐다.

구매 혜택도 제공된다. 행사 기간 향수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버블 바스 미니 향수(7ml)’를,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5000원 쿠폰을 제공한다는 게 쿠광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AI 역량강화로 의약품 생산 선제대응

김진한 신임 AI 연구실장 선임  
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설립 인제  
지난해엔 美 바이오 벤처기업 투자  
개발·생산 디지털 역량 강화 전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공지능(AI)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김진한 상무를 인공지능 연구실장(AI LAB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6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김진한 신임 인공지능 연구실장은 이달 1일부터 합류했다.

김진한 신임 인공지능 연구실장은 인공지능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응용생물화학,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영국 에든버러대학교에서는 각각 컴퓨터공학 석사와 인공지능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밖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특히 그는 지난 2015년 AI 기반 신약 개발 스타트업인 스탠다임을 설립하기도 했다. 스탠다임은 유효물질 탐색, 선도물질 도출 및 최적화, 전임상 후보물질 구축 등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포괄하는 연구개발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 영입에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말에는 미국 바이오 벤처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도 투자한 바 있다.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은 생성형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크로마는

원하는 특성과 기능을 갖춘 드 노보 단백질질을 신속하게 설계해 준다. 드 노보 단백질은 기존에 존재하는 단백질 서열이나 구조에서 유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약물접합체(ADC), 다중 항체 등 차세대 치료법을 갖춘 의약품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세계 최대 규모 제약·바이오 행사인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도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파트너로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생산공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혀 왔다.

특히 올해 4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5공장의 경우, 항체 의약품 생산 용량은 총 78만4000L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화 공정 환경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생성되는 데이터를 한 데 모으는 데이터 호수(데이터 레이크), 생산관리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해 시설운영 효율성과 품질 강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객사가 실시간으로 공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국내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공정과 신약 파이프라인 등 연구개발 모두에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을 상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파트너사들이 차세대 모달리티에 집중하고 있는 속도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캐파 증량은 기본이고 공정 기술에서도 차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정관장, NPEW서 전 세계에 'K-건기식' 알린다

(세계 최대규모 천연식품 박람회)

베스트셀러 '에브리타임' 등 선봬  
2000여명 시음... 높은 관심 보여  
美 '아마존' 입정예정 신제품 공개

정관장이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현지시간으로 4일부터 7일까지 '2025 NPEW(Natural Products Expo West)'에 참가해 전세계에 K-헬스(Health)를 알렸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NPEW는 전세계 약 130개국 3000여 개의 식음료업체와 6만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식품 박람회로 전세계 천연식품, 건강기능식품, 뷰티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다. 정관장은 NPEW에 지속 참가하며 각국 소비자 및 바이어들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정관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Find Your Energy, Find Your Flow(당신의 에너지를 찾으세요, 당신의 흐름을 찾으세요)'라는 테마로 정관장 대표 베스트셀러인 '에브리타임'을 비롯하여, 혈당조절 건기식 'GLPro(지엘프로)', 건강 에너지드링크 'HSW(홍삼원)' 등을



정관장 에브리타임 신제품 3종.

/KGC인삼공사

선보이는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정관장 홍삼의 7대 기능성(면역력 증진, 혈행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건강, 혈당조절)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방문객들에게 정관장 제품으로 만든 논알콜-헬시 컵테일을 제공하는 등 이색 이벤트도 마련하며 호평을 받았다. 행사기간 동안 메인부스에서만 2000여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에브리타임'을 시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관장은 야외광장에 액티비티 존을 설치하고, 태권도 송판 격파 시범, 에너

지펀치 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관장은 이번 박람회에서도 미국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에 입정 예정인 '에브리타임' 신제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에브리타임 퍼폼A', '에브리타임 파워폼', '에브리타임 칼로트림' 3종이다. 각각 운동 전 혈관확장, 운동 중 지구력과 스테미너 증진, 그리고 효과적인 칼로리 소모에 특화됐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이번 NPE

W 참가를 통해 정관장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정관장은 현지인 맞춤형 효능연구와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통해 세계 속의 K-헬스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인 KGC인삼공사는 글로벌 타피어 종합 건강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글로벌 마케팅 관점에서 '에브리타임', '활기력', 'HSW(홍삼원)'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코스트코·아마존 등 현지 유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나갔다. 뿐만 아니라 한국 건강기능식품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의 프리미엄 마켓체인인 '스프라우츠'와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 '웰시아' 등에 입점해 해외 고객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또한 R&D기술력을 기반으로 홍삼오일, 두충우슬추출복합물 등 신규 기능성 원료 및 건강 소재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가그린 '디스커버리 세트'

/동아제약

동아제약  
"가그린 6가지 제품  
한 번에 경험해요"

동아제약이 구강관리 브랜드 가그린에서 디스커버리 세트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가그린의 여섯 가지 제품을 한 데 담았다. 제로, 오리지널, 후레쉬 라임, 피치민트, 유자민트, 제로 블라스트 등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다.

동아제약은 이번 세트를 통해 가그린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그린 디스커버리 세트는 동아제약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 유한양행 '이문온시아', 코스닥 상장 추진

예비심사 통과... 기업공개 절차 돌입

유한양행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에서 자회사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기업 이문온시아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문온시아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본격적인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한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은 통지한 후 6개월로 규정되고 있어 이문온시아 기업공개는 올해 9월까지 마무

리될 전망이다. 이문온시아는 914만 482주를 공모할 예정이고 총 상장 예정 주식수는 7300주 4309주다. 상장주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문온시아는 코스닥 시장 진입에 거듭 도전해 왔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상장 추진을 한차례 미뤘다. 이후 2024년 4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획득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 평가 기관 2곳으로부터 A, BBB등급을 받은

면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했다.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할 공모자금은 임상 개발 비용으로 투입하는 등 신규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문온시아는 2016년 9월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테라퓨틱스가 합작해 설립한 면역항암제 전문기업이다. 유한양행은 6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문온시아는 체내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와 대식세포를 표적하는 핵심 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초 면역관문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다. 모든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서 '계열 내 최고 신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핵심 파이프라

인으로는 IMC-001, IMC-002, IMC-003 등을 구축했다.

특히 IMC-001은 PD-L1 항체로, 암세포 표면의 'PD-L1'이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문온시아는 NK/T세포 림프종을 비롯한 희귀암을 적응증으로 IMC-001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물질은 기존 화학요법에 실패한 환자에서 객관적반응률(ORR) 79%, 완전반응률(CR) 58%를 기록해 기존 약제 대비 높은 항암 효과를 보였다. 무진행 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은 30개월 수준이다.

/이청하 기자

삼립  
KBO리그 개막일 맞춰  
신제품·띠부씰 선봬

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업을 통해 베이커리 제품 출시에 나선다.

삼립은 지난 해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던 KBO리그와 올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오는 20일 KBO리그 개막일에 맞춰 9개 구단과 협업한 다양한 신제품과 띠부씰을 공개하고 오는 15일부터 카카오택배를 통해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ANGELINUS



**KB금융, MWC 주관 GSMA와 ICT·금융 분야 협업**

KB금융그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를 주관하는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와 ICT(정보통신기술)·금융 분야의 업무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모바일 기술 발전을 위한 양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KB금융그룹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스타트업 발굴·육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이 종근당과 창업기업 발굴·육성에 나선다. 9일 기정원에 따르면 양측은 ▲혁신 바이오기업 발굴 및 육성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R&D 연구 협력 지원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이디야,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자립 돕는다**

이디야커피가 서울시, 서울시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세 기관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다문화가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이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디야커피



**동아에스티, 저성장 어린이에 성장호르몬제 지원**

동아에스티가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2025년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을 통해 150여 명의 저성장증 어린이들에게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 II 주사액 카트리지', '그로트로핀-II 주사액 아이펜 30IU' 등을 전달하게 됐다. /동아에스티



**한림대성심병원, 개원 26주년 기념식 개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개원 26주년을 맞아 미래 의료 혁신과 환자 중심 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고 9일 밝혔다. 1999년 문을 연 한림대성심병원은 최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 의료 기술 연구,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첨단 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정기선 “한미 조선·해양 혁신 함께 이끈다”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

**美 해군사관학교 방문 협력 강화 AI 자율운항·첨단 선박 기술 논의**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미래 해양기술과 한미 조선·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 정 부회장이 7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이벳 M. 데이비스 교장과 사마라 파이어보 교무처장 등과 면담했다고 9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해군사관학교의 선체 구조 강인성과 유체역학 연구실을 둘러본 뒤 교수진 및 학생들과 미래 해양 기술 발전과 연구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왼쪽)이 7일(금)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이벳 M. 데이비스 교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

이어 생도들과의 환담에서 “한미 동맹은 희생으로 맺어져 수십 년 동안 강화됐고,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넘어 글로벌 안보의 한 축이 됐

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조선·해양 분야 혁신의 원동력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HD현대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및 디지털 첨단 선박 기술을 소개하며 “세계 최정상급 이시스 구축함 5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해군에 인도하는 등 국가 안보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기선 부회장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 팔란티어 사무실에서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대표와 만나 ‘AI 조선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다졌다. 팔란티어는 미국 방산

AI 기업으로 미 국방부, 해군, 육군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한편,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팀코리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 2월 방위사업청과 함께 합정 수출사업을 위한 ‘원팀’ 구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가 단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원팀코리아’ 전략을 통해 협력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폴란드와 필리핀 중동 잠수함 사업, 태국과 중동 호위함 사업 등 향후 예정된 글로벌 합정 사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coul.co.kr

## LGD,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서 ‘최고 등급’

상위 1% 최상위 등급 플래티넘 받아 ESG 평가·목표 구체화 긍정 평가

LG디스플레이는 에코바디스(EcoVadis)의 2025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상위 1%,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2007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이다. 세계 180여개국 15만 개 이상의 기업을 ▲환경 ▲노동·인



LG디스플레이가 획득한 에코바디스의 플래티넘 메달 사진. /LG디스플레이

권 ▲윤리 ▲공급망 측면에서 평가한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평가에서 ESG 정책과 목표를 구체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친환경 기술 혁신과 협력사 역량 강화 지원, 준법 관리 체계 고도화 등 노력도 인정받았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플래티넘 등급 획득으로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남영 기자 koogija\_tea@

## 중진공 공공데이터 평가 90점 6년연속 최고등급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9일 중진공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진공은 데이터 개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유 데이터의 품질 관리 등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아 전년 대비 8.25점이 상승한 90.25점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승호 기자 bada@

## 산업인력공단 “공공데이터로 창업 도전하세요”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응모작은 10월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응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2~4인 이내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4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상, 산하기관장상과 포상금 총 18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문가 멘토링,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추천, 유튜브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중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

방·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다양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공공데이터가 산업혁신과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스타벅스, ‘일회용 컵 없는 날’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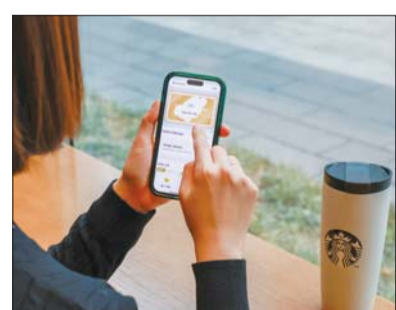
스크래치 이벤트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가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개편한다.

스타벅스는 매일 10일 ‘일회용 컵 없는 날’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해 개인 다회용 컵으로 제조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에코별 1개를 즉시 제공하고, 추가로 ‘스크래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스크래치 이벤트’는 스타벅스 앱 내 배너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개인 컵을 이용해 에코별을 적

립한 고객에 한해 별 또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적립된 에코별 1개당 1회 참여 가능하며, 스크래치를 긁어 당첨된 별 또는 아메리카노 쿠폰은 즉시 지급된다.

기존 ‘일회용 컵 없는 날’에는 개인 다회용 컵을 4번 사용해서 모은 별 8개로 교환 가능했던 아메리카노 한 잔을 스크래치 이벤트를 통해 더욱 빠르게 즐길 수 있어 개인 컵 사용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고객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벅스가 ‘일회용 컵 없는 날’을 개편하고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이처럼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매일 10일 ‘일(1)회용 컵 없는(0) 날’ 캠페인을 전개하며, 커피박 화분 키트, 이벤트 별 증정 등 고객 혜택을 지속 강화해오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전담 국가연락관 기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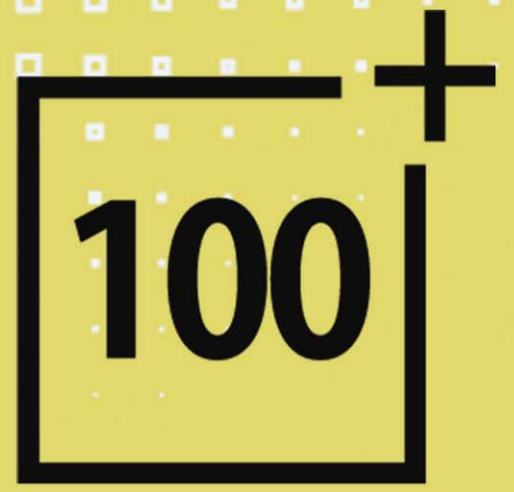
기술보증기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내 중소·벤처기업 전담 국가연락관(NCP) 기관으로 지정됐다. 9일 기보에 따르면 NCP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사업이자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국가연락관을 지정한다.

기보는 이번 지정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지침과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성규 △규제심판운영팀장 김광재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 코트라의 깊은 뜻



김승호의  
시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내막을 살펴보니 중소기업청을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으로 격상해 만든 조직이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중기부는 산자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으로 격상해 만든 조직이다.

동생(중기부)이 아젠다로 가져가고 있는 창업기업, 즉 스타트업 이슈를 형(산업부)이 돈과 사람을 들여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스타트업으로 엮이다간 차치 조직이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코트라 내부에 엄습한 것이다. 여기엔 '산피아(산업부+마피아)'의 의지도 담겼다.

앞서 코트라는 중소기업본부내 글로벌일자리실에 '스타트업지원팀'을 꾸렸

었다. 스타트업지원팀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해외 투자유치,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는 전 세계 85개국에 총 131곳의 해외무역관을 두고 있는 등 탄탄한 글로벌 조직을 갖춘 코트라만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를 능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중기부 산하인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16개국, 26곳에 두고 있지만 코트라와 비할바가 아니다. 물론 173곳에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 외교부와 이들 기관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어느날 코트라가 스타트업지원팀을 없앴다. 지금은 중소기업본부 수출기업실 중소기업혁신팀에서 일부 직원이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할 정도로 조직이 크게 축소됐다.

코트라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을 하기위해 야심차게 진행했던 '이노게이트' 행사 역시 팀 해체와 동시에 2022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코트라 안팎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전임 이영 중기부 장관 시절 코트라를 놓고 산하기관 조정 이슈가 다시 한번 대두됐다. 그때 코트라 내부에서 중기부가 하는 스타트업을 도와 줄 필요가 없다는 기류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인사는 "코트라는 60년대식 체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수출·해외 진출기업을 위해 법률 서비스, 금융지원, 회계, 세무, 노무, 인력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한국 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갔었지만 추가 진전 없이 폐기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내수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해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bada@metroseoul.co.kr

# 대체거래소, 규제 완화·제도 개선 필요



김대환의  
시선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지난 4일 출범했다. 68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 독점 시대를 끝내며 투자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줬지만, 여전히 규제의 족쇄에 갇혀 있어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체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15%로 제한돼 있다. 미국의 대체거래소는 전체 주식 거래의 40% 이상, 일본은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대체거래소는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5% 점유율 제한은 대체거래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체거래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자금 조달 및 서비스 개선이 가능한데, 15%라는 인위적 상한선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거래량이 제한되면 유동성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투자자들의 의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체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한정된다는 점도 큰 문제다. 해외 대체거래소는 ETF, 파생상품,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체거래소는 상장주식 외에는 취급이 불가능해,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기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 더해 대체거래소의 시장 감시 역할마저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이 대체거래소의 거래와 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다. 대체거래소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대체거래소가 한국거래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체거래소의 성공은 규제 개선에 달려 있다. 인위적인 시장 점유율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허용하며,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체거래소는 단순히 한국거래소의 보조 수단이나, 주식시장의 경쟁 구도를 강화하고 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돼야 한다. 대체거래소가 진정한 경쟁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kdh@

오늘의 운세 3월 10일 (음 2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격한 말로 서로를 지치게 한다. 4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배회하는 격. 60년생 새 소식을 듣고 문에서 횡령. 72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오직 성공으로 측정. 84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37년생 못지 않으려면 장사를 접어라. 49년생 독단적인 처리가 발목을 잡는다. 61년생 부업수리를 하니 새로운 기운이 향상. 73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85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된다.



38년생 당장 고쳐야 할 것을 방치해서 곤란을 겪는다. 50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해보라. 62년생 본래는 공정하게. 74년생 취직이 싫다면 자격증 시대이니 기술을 배우도록. 86년생 활짝 가슴을 펴고 살자.



39년생 결혼은 돌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51년생 조상제사에 꼭 참석. 63년생 하나를 얻으려고 셋을 포기하는 격. 75년생 고인 물은 흘러보내야 썩지 않는다. 87년생 재혼한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



40년생 친척과의 대화가 근심을 가져온다. 5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64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다. 76년생 내자대로 남을 평가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 88년생 거짓말도 변명거리가 필요하다.



41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자. 53년생 망설이지 말고 집안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65년생 향기 없는 꽃에 속지 마라. 77년생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89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다시 상의.



42년생 휴식이 없는 인생이 서글프다. 5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에 차자. 66년생 헛된 욕심으로 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78년생 오후에 음주하려면 차는 가져가지 말도록. 90년생 앞면 이가 빠진 것처럼 일이 풀린다.



43년생 새 소식이 문전에서 바로 온다. 55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피라. 67년생 물이 들어오니 노를 할것 저러라. 79년생 우기지 말고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91년생 이제라도 적응을 하나 들어보자.



4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56년생 시험장소는 정동쪽만 피하고 움직여보라. 68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80년생 하던 일이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92년생 늦지 않았으니 두드리면 열린다.



45년생 이성간에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57년생 날이 향상 맑지만 바라지 마라. 69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81년생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용기로 변한다. 93년생 큰 매대 건을 포기하기 하니 마음은 편하다.



46년생 돈 자랑 말고 나누는 미덕도 함께 했으면. 58년생 오랜 적성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70년생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 82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거나 지체만 당하는 이치. 94년생 사람만으로 어찌 살 수가 있겠는가.



47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니. 5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71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83년생 버틸 수 있으니 아직 희망은 있다. 95년생 로또를 사이지 당첨기회가 오듯 실력을 키워야만 기회가 올 텐데.



# 김상회의四季 속성기도

우리의 '빨리빨리' 정신이 고속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기도로도 그러하다. '속성기도'라는 말도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찰이나 암자에서는 연례행사처럼 하는 기도 발원 중에 학업성취 기도가 있다. 특히 수능 백일 전부터 고3 수험생들을 둔 엄마들은 수험생 자녀를 위해 너도나도 학업성취기도 발원에 매진한다. 불교 쪽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당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시험을 앞둔 백일 전부터의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일생일대의 시험을 앞두고 백일기도는 좀 염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애만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기도처럼 비칠 수도 있다.

물론 기도의 의미가 반드시 나만 잘되자고 하기보다는 심신의 평안을 유도하고 아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라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말이다. 수험생기도는 대부분 엄마가 대신한다. 모태에 품어 낳은 자식이니 아무래도 염력의 소통이 높다. 이것이 엄마의 힘이다. 맹모삼천지교나 한석봉 어머니의 일화만 보더라도 아이들 교육엔 엄마의 입김이 크다. 기도 현장에 아버지는 없고 운동 엄마나 할머니가 주인 이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 각자의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 목표를 정하고 그 성취를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 빨리 이루어지는 속성기도의 전제는 평상시에도 마음을 모으는 하루 삼배라도 하라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 삼배를 습관화 해보기를 신도분들에게 권했다. 살다가 급작스러운 경우를 당했을 때에야 마음이 저절로 급해지니 그럴 때는 속성기도를 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삼년 전부터라도 작정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열대퍼즐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2	7	4	9	1	
					3
1			2		6
	3	4			
	1	8	2	3	
		1	5		
4			8		2
8					
5	1	7	4	8	

2		3	4		1
			8		2
1			6		4
			9		5
5		1	8		6
	3		5		
7			9		3
	9		2		
2		1	8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열대퍼즐 증가비율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7	2	9	1	2	9	8
1	8	9	7	2	6	2	8	
2	9	2	8	6	9	1	7	
7	2	9	1	8	8	6	2	
2	9	8	2	6	8	1	7	9
8	6	1	9	7	2	8	9	2
9	2	6	8	2	9	7	8	1
8	7	2	1	9	9	8	6	
9	1	8	6	8	7	2	9	

2	6	8	9	1	8	9	2	7
1	7	9	2	8	2	9	6	8
8	9	2	6	9	7	8	1	2
8	2	7	9	9	2	1	8	6
9	8	6	8	2	1	2	7	9
2	8	1	7	8	6	2	9	8
7	8	2	8	2	9	6	9	1
9	2	8	1	6	8	7	2	9
6	1	9	2	7	9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2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3월 복귀하면 내년 정원 원점으로 교육부 수용에도 의대생들 '싸늘'

교육부, 내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증원 동결에도 의대생 단체 냉담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철회 등 요구  
올해에는 집단휴학 엄정대응 할 것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지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대생이 복귀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은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에 이미 발표된 5058명이 된다.

이 부총리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복지부가 정한 2000명 증원을 학교에 배분하고 잘 교육시키는 책임이 있는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의대증원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했다"라며 "증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했다. /교육부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인 추계에 의해 의대 정원을 늘려 간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일관되게 인력을 늘릴 예정"이라며 "2027년부터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의대인력이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2026년 의대 증원 여부는 의대생 손에 넘어가게 됐지만, 의대생들은 반응은 싸늘하다. 2027학년도부터의 의대 정원은 여전히 5058명까지 증원 가능한데다, 지난해 휴학했던 2024학번이 2025학번과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전국 의대 학생회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24·25학번 교육 파행 해결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를 통해 휴학을 인정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은 반드시 3월 넷째 주 안에는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 고려대, 융복합공간 '정운오IT교양관' 준공

물리·생물 등 첨단 실험실 마련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6일 정운오IT교양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고 9일 밝혔다.

정운오IT교양관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7443평(2만4605.87㎡), 높이 41.5m로 건립됐다. 건물에는 첨단 시설을 갖춘 교양 물리·생물·화학 실험실이 마련돼, 기존 캠퍼스 곳곳에서 이뤄지던 교양 실험과 실습이 하나의 건물에서 이뤄지게 됐다.

또한, 반도체공학과 연구실, 정보보호대학원 연구실과 강의실, 산학협력단,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연구실 등이 입주해 반도체, 정보보안 분야 연구와

정운오IT교양관은 2019년 고(故) 정운오 회장 유족이 전달한 기금으로 추진됐다. 정 회장은 1941년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후, 평생 청빈한 삶을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섰다. 정 회장의 자녀들은 아버지 설립한 강간호텔을 매각한 뒤, 상속재산 가운데 200억원을 고려대에 기부했다.

김동원 총장은 "정운오IT교양관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연구·토론하는 핵심 거점이 돼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 한신대 창업보육센터, 신규 가족기업 협약식

입주기업-대학 간 산학협력 논의

교수진은 각자의 연구 분야와 협업 가능성을 소개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6일 동탄 신라스테이에서 '3월 Biz교류회 및 신규 가족기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승택 창업보육센터센터장과 강민구 AI·SW대학장, 홍승필·이용걸·박기홍·이양선 AI·SW대학 교수, 이미옥(창업지원팀) 교수, 이상준·장홍영·김동석 SW중심대학사업단 교수 등이 참석해 3월 Biz교류회를 진행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창업보육센터의 새로운 가족기업인 ▲티윌튼(대표 반재권) ▲테넷코드(대표 이경호) ▲다터바이오텍(대표 정덕영) ▲예비 창업자(대표 김영기) ▲예비 창업자(대표 유보람)의 가족기업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에는 총 21개 기업이 입주하게 됐으며, 이들은 센터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신한카드도 '다둥이 카드' 발급... 혜택 확대

서울시, 다자녀 가족 선택권 늘려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혜택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에게 경제·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를 10일부터 기존 우리카드 1개사에서 신한카드까지 확대해 다자녀 가족의 선택권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신용·체크)로, 지난 2007년부터 발급하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나이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실물 카드 대신 스마트폰 '서울지갑'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익도 높였다.

다둥이 기준 완화와 함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했다.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 다양한 서울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형 키즈카페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하면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의정부시, 세계여자컬링선수권 점검 박차

김동근시장, 대회 준비상황 최종점검

의정부시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다가오면서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7일 대회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컬링연맹(WCF)이 주관

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이자, 세계 각국의 최정상급 여자 컬링팀이 참가하는 의정부 최초의 세계대회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실내빙상장을 방문해 빙질 상태, 냉동 설비, 제습기 등 경기 핵심 요소를 확인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의정부(경기)=김동택 기자 mk4303@

# 서울 학교, 사물인터넷으로 냉난방기 관리

시범사업 결과 유지관리비 50% 감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교 냉난방기의 통합형 유지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반 학교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 학교를 확대한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IoT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합형 냉난방기 유지관리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극심한 가운데 노후된 에어컨의 잦은 고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oT를 활용하는 냉난방기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학교 내 냉난방기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371교 대상으로 IoT 활용 냉난방기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실시 결과, 학교 자체 보수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50% 감소했다. 향후 전체 학교로 확대 시 연간 약 9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IoT 활용 냉난방기 사업대상 학교를 총 614교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6년까지 공립학교 전체 1020교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1 | 해질 / 18:34

3월 10일 (월)  
음력 : 2월 11일

수도권 날씨  
3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4, 동두천 -1/15, 가평 -2/14, 파주 -3/14, 서울 3/14, 양평 0/14, 수원 3/14, 평택 0/15, 인천 2/12, 영인 3/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젤렌스키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돼 있다" /사진 뉴시스  
▲트럼프의 가자 점령과 개발 발언으로 핫트럼프 골프장에 시위대 공격

▲이스라엘, 10일 도하에 대표단 파견..가자 인질 석방 회담 진행 예고  
▲이란 최고지도자 "갑박하는 강대국"...트럼프 대화 제안 거부

▲독일 보수·진보 대표 전당, 연정 구성 원칙에 합의  
▲펜스, 트럼프 관세 정책 겨냥 "자유무역이 미국인 삶 개선"



홈플러스  
대금 순차지급  
식품업계 납품 재개  
니



Life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생산 대응  
SI역량 강화  
L2



올바른 구강습관 알리고, 소외계층 무료진료도

# “환자와의 신뢰 중요… 맞춤 치료로 치아 건강 지켜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서울삼성치과의원  
주 지 훈 원장

주지훈 서울삼성치과의원 원장은 학창 시절의 꿈을 이루고,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직업적 소망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과 의사의 삶을 넘어 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열정, 기술과 인간적인 이해가 결합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믿음에 대한 것이다.

1980년대 국내의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한국 경제가 활발한 성장세를 구가하던 그때, 학비를 걱정했던 한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과 의사가 되기를 꿈꿨다.

주지훈 원장은 “1980년대 후반 60명 규모로 구성된 한 반에서 납입금을 못 내는 학생들은 10명 정도씩 있었고 저는 그 10명 중 한 명이였다”고 회상하며 “중·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때 사립 학교는 절대 선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소년의 꿈은 그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그는 치과 의사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경력을 쌓고 있다. 특히 그가 치과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바로 보철학이다. 실제로 여러 치과 분과 가운데, 보철은 ‘치과의 꽃’이라고 불리는 핵심 분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주지훈 원장은 “과괴된 치아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 전반적인 구강 내 상태를 건강한 상태와 비슷하게 재건시켜 주는 것을 통틀어 보철이라 한다. 치아가 없는 경우에 틀니를 해 넣는 것을 비롯해 치아가 많이 썩어 파괴된 부위에 크라운을 해 넣는 것, 임플란트 등이 모두 보철 치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보철 치료는 높은 정밀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주 원장은 ‘교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합은 위아래 치아가 정확히 맞물려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교합이 유지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저작운동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악관절이나 근육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치아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음식을 씹거나 침을 삼킬 때 교합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보철 치료를 완성해 준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는 턱뼈에 티타늄으



주지훈 서울삼성치과의원 원장.



어려운 가정환경 극복하고 치과의로  
핵심분야 ‘보철학’ 30년간 경력 쌓아  
임플란트 시술 등 치아 교합 중요해

소외계층 어린이 무료진료 프로젝트  
안전한 성분 사용한 어린이 치약 연구  
환자들에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알려

로 된 나사를 심고 그 위에 치아를 만들어 주는 치료법이다. 뿌리가 취약한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등 구강 건강에 더 불리하다. 주 원장은 “임플란트의 교합이 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술과 이후 관리가 잘 되면 평균 수명인 15년보다 길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 임플란트는 대중화됐다. 주 원장은 “미국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임플란트 전문의만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한국은 거의 모든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 결과, 박리다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치과 병원도 많이 등장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렇듯 국내에서는 임플란트가 빠르게 보급됐고 폭넓게 수용되면서 환자들도 임플란트 비용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하지만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의 수명이라는 점을 기억해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문제없이 사용하는 데 기준을 두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득을 위해 주 원장은 환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는 “치과는 필수 의료인 만큼 다양한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면서도 환자마다 병변이 다르므로, 각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환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치료도 성공할 수 없다”며 “신뢰를 얻는 방법은 따로 없다. 까다로운 상황일수록 냉철한 분석과 임상에 기반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진료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다”라는 대답을 했다.

치과에서도 응급 상황은 예외가 없다. 주 원장은 “치과에서는 앞니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가장 응급한 상황이다. 외관상만 고려해도 앞니가 없다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밖에 흔하지는 않지만, 치아에 염증이 심해져 고름이 차거나 허 밑으로 부풀어 오르는 등 호흡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를 응급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지훈 원장은 치과 의사로서 진료실 밖에서는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2010년 초반 몇 명의 치과 의사들이 모여서 소외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무료 진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치과 진료소 ‘해피 스마일 치과버스’ 활동에 동참했다. 21세기 첨단 시대에도 국내 결식 아동 수는 무려 40만 명에 달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털 배고프기를 원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효율적인 건강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상 속 가깝고 낮은 곳에서 가장 필수적인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던 주 원장은 자원봉사를 지속하기 위한 수익 사업으로 치약 개발에도 전문 역량을 쏟았다.

기존 치약은 삼푸에도 활용하는 계면활성제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혀의 유두를 마비시켜 양치질 후 입안을 얼얼하게 만든다. 국내 제품뿐 아니라 해외 유명 제품들도 사용하는 성분이지만, 대부분 치약은 전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치약이 닿는 점막은 치약 성분을 흡수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로 어린이 구강 환경에 적합한 치약을 개발하게 됐고 치약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후 구강관리 전문기업 ‘제니트’는 어린이 치약으로는 알아주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독자적으로 성인을 위한 잇몸에 좋은 치약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예방 차원의 구강 관리 습관을 알리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3분만 채우는 양치 습관은 옳지 않다. 사실은 양치질을 제대로 잘하려면,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치아 하나, 하나와 그 틈을 꼼꼼하게 닦아야 한다.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투자해 숙련하는 과정을 거쳐 3분 내로 줄여야 한다”며 “양치질하다가 거품이 생기면 끝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방법도 옳지 않다. 거품이 생기면 빨리 양치질을 더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침과 점심은 바쁘겠지만 저녁에라도 꼭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을 이으며 “치아 사이사이 구석진 곳이 많아서 모든 부위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잘 제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실현한 양치머신에 대한 수요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충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술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현대 사회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주 원장은 새로움에 대응한다는 것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다른 시작에 두려움이나 위기를 먼저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본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도 예민한 영향을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그들은 때때로 치과와 관련 없는 불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본인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치과 진료일수록 환자들의 예민함과 불편함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지훈 원장은 치과 의사로서 삶의 목표가 뚜렷하다. 앞으로도 시대가 흘러도 변함 없는 임플란트 명가로 입지를 다지는 명품 치과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SSG 김광현, 시범경기 첫 등판 30닝 2실점 ‘흔들’…박병호에 피홈런 /사진 뉴스시스  
▲키움, 현대백 목동점서 팝업스토어…신규 유니폼 실물 최초 공개

▲배드민턴 안세영, 오를레앙 마스터스 결승행…3연속 우승 도전  
▲이정후, MLB 시범경기 연속 안타 행진 마감…2타수 무안타 1타점

▲이강인 선발출전 64분 활약…PSG, 렌에 4-1 대승  
▲KBO, 삼립과 협업한 ‘크보빵’ 출시…띠부싯도 함께 제공